



참여·협력·영광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신년교례회 성황〉 지난 1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 8백여 동문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2~3면〉

관악출추

모교가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모교 발전을 위한 30만 동문의 보금자리가 될 총동창회관(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액이 목표치인 3백억원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林光洙 총동창회장장은 지난 1월 10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戊子年 신년교례회에서 “장학빌딩 건립기금은 10억원 이상을 출연해 주신 동문이 18명이나 되며 기타 동문들께서도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에 당초 목표액 3백억원 약정이 거의 다 이뤄졌다”고 밝혔다. 회회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출연 또는 약정해준 동문이 불과 2천7백여 명에 불과하다며 참여 동문 수가 적은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동문이 30만명인데 출연자가 2천7백여 명이라면 전체 동문의 1백10분의 1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걸 누가 봐도 의외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서울대 출신들이 ‘모래알’이라는 지적을 받지만 말이다. 동창회관은 단순한 親交의 場이 아니다. 우리가 몸담았고, 사회에 나와서도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교 서울대를 돕는 곳이다.

李長茂총장은 신년교례회에서 동창회와 동문들이 모교의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참여자로 적극 나설 것을

불어나게 되며 그 운영수입을 통해 연간 1천여 명의 모교 재학생과 교수에게 장학금 20억원, 연구활동비 20억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아직 모금에 동참할 시간은 충분하다. 반드시 거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총동창회에서든 금년엔 소액 출연을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 동문은 10만원, 이사급 동문은 30만원 이상을 내면 아름답고 우아하게 꾸며질 명예의 전당(Hall of Fame) 벽면 동판에 이름이 새겨져 영원히 보존된다.

장학빌딩은 30만 동문의 숙원사업이란 이름에 걸맞게 많은 동문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소수의 모금으로 지어서는 의미가

없다. 十匙一飯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각자가 벼돌 한 장이라도 얹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하자. 그래야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갖고 마음 편하게 동창회관을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우리 다함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새기자.

(徐玉植는설위원)

동창회관에 내 이름을 새기자!

역설한 바 있다. 대지면적 1천6백31㎡, 연면적 2만1천2백77.88㎡, 지상 19층, 지하 6층 규모의 장학빌딩에는 동창회 사무처는 물론 전시갤러리, 콘서트홀, 연회장, 세미나실을 겸한 회의실, 명예의 전당, 옥외공원, 예식홀, 임대사무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장학빌딩이 완공되는 2010년 말이면 동창회 재산은 1천억원대로



좌로부터 孫一根·金信福·李吉女·鄭城鎮·趙 淳·權舜赫·林光洙·李長茂·金在淳·趙完圭·李世中·朴奉植·李基俊·尹鍾龍·鮮于仲皓·李相周·洪性大 등문

“도약의 중흥기 맞아 단결된 모습 보여주길”



공로패 수상자와 함께 (사진 左) 좌로부터 金日洙·鄭正佑·趙東蘭·林光洙·白純之·黃殷植·安秉勳 등문, (사진 右) 좌로부터 金富燦·朱昇澤·林光洙·洪相福·吳在奎·朴利緒 등문

신년회서 유공 동문 14명 표창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1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8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林光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는 해에는 나라의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고 국민이 생업에 충실함으로써 國利民福

이 증진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한 뒤 모교와 동창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준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모교 발전기금 모금과 관련해 林光洙회장은 “사회에 나와서 어렵고 중요한 고비마다 뒤에 훌륭한 모교가 있다는 긍지와 은덕으

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모교를 돕는 보람의 공감대를 넓혀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총동창회는 재산 1천억원 시대를 여는 도약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서울대인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장학발딩 건립에 동문들의 소액 출연을 독려하고, 해외 지부 및 우수대학 동창회와 제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격려사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조금씩 확보되고 있는 가운데 모교는 지난 1년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성과와 적극적인 국제교류 홍보 그리고 휴머니티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며 “교수와 학문 업적에 대한 평가가 크게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국가의 제한된 지원에 의존하는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세계 50위에 오를 수는 있었지만, 세계 30위, 나아가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모교가 장기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외국 대학의 경우와 같이 동창회와 동문들께서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발전기금 모

금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모교는 동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발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캠퍼스 투어와 대학 축제와 같은 각종 학내

행사에 동문들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교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삼성전자 尹鍾龍부회장은 축사에서 “모교가 세계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우수한 교수와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나도 지갑을 열어 모교 지원에 동참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본회 河永基고문, 金在淳 명예회장,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李吉女·金讚淑부회장, 모교 權舜赫전임 총장, 李長茂총장, 金信福부총장, 趙 淳민족문화추진회장, 삼성전자 尹鍾龍부회장, 金炯昨국회의원이 새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며 시루떡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金在淳명예회장은 건배제의에서 “인간에겐 자존심이 중요하지만, 서울대인에게 조국 앞에 무한 책임이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열정과 소임을 다해 지난 10년과는 달리 웅비하는 조국과 모교를 위해 힘쓰자”고 전했다.

이어 가진 유공 동문 시상식에서 동창회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임 단과대학(원) 및 지방지부동창회 회장인 兪淑子(간호대)·白純之



張惠智동문 축하 불러

모교 석사과정에 있는 張惠智(성악02-06 2007년 동아 음악콩쿠르 1위)동문이 諸葛所望(기악02-06 2005년 동아 음악콩쿠르 1위)동문의 반주에 맞춰 가곡 ‘넌이 오시는지’와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기’ 중 ‘사랑스러운 나의 아버지’를 선사했다.

2008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21일 (금)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4장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8년 3월 21일 (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 ◆내 용 : ① 제10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②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 사업계획 보고
③ 임원 개선
④ 기타 안건 심의
- ◆회 비 : 없음. 동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동창회 152차·관악회 104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좌로부터 金信福·尹鍾龍·趙 淳·李吉女·李長茂·權舜赫·林光洙·金讚淑·金在淳·河永基·孫一根·金炯昨동문



롯데호텔 현관 입구에 설치된 신년교례회 현수막

각계 8백여 동문 신년회 참석



權舜赫동문

趙 淳동문



李吉女동문

鄭興淑동문

창성의 힘세고 고집 센 소
에서 유래한 ‘碧昌牛’ 같
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대통령
은 국민의 마음을, 총동창
회장은 30만 동문의 마음
을, 대학 총장은 재학생과
교직원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
는 3V, 즉 비전(Vision)
을 가지고 이를 추진력
(Venture) 있게 실천해
승리(Victory)를 거두겠
다는 마음과 남의 말을 경
청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
다”고 말했다.

李吉女부회장은 “새 정

부가 들어서게 되면 모든 분야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절대
로 변해서는 안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며 “국가와 모교를 위해 열
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마음은
변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오후 5시부터 동문들의 발걸음
이 끊이지 않았던 이번 신년교례
회에는 유력 인사뿐만 아니라 영
동지부·부산지부·제주지부 등 전
국에서 참석한 동문, 부부 또는
가족 동문, 각 학과·기별 동기회,
모교 단체 학장을 비롯한 보직교
수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들이 한
데 어우러져 행사 마지막까지 끈
끈한 동문애를 나누는 모습이 연
출됐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제작해 매년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업무용 다이어리를 받았다. (表)

장학빌딩 건립기금 정성 ‘훈훈’

李禎相동문 1억 쾌척



최근 국내 장화업계 선두주자인
(주)보생 李禎相(상학59-65 부
산지부 상대동창회장)회장(사진)
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
억원을 쾌척했다.

현재 부산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李회장은 1986년 법인설립
이전부터 김해, 중국 곤산, 인도
네시아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국내 최초의 PVC장화를 개발, 20
년간 미국 등에 수출해왔다.

李회장은 “선진계서 40~50년
전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재단을 확대시켜 경남
하동군에 선친의 호를 딴 ‘春江장
학재단’을 10여 년간 운영해왔다”
며 “매년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3
명을 선발해 졸업할 때까지 등록
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베
룬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으
면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이 힘든 일

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李禎相특기장학금’을 수여하게
되는 李회장은 “총동창회 이사로
있으면서 늘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모교 발
전에 미력이나마 도울 수 있게 됐
다”며 “장학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후배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
겠다”고 덧붙였다.

천만원 이상 7명 출연

지난 1월 25일까지 본회 장학빌
딩 건립기금으로 법무법인 마당
李載哲(법학70-77)대표변호사,
드림치과 姜應善(치의학78-84)
원장이 각각 1천2백만원을 출연
했다.

또 모교 법대 金哲洙(법학52-
56 본보 논설위원)명예교수, 삼
신전자 姜信主(사회교육51-55)
대표, 대덕전자 金榮率(공업화학
77-81)사장, 서정엔지니어링 李
仁基(지질과학62-66)이사, 모교
간호대학(학장 尹順寧)이 각각 1
천만원을 보내왔다.

장학빌딩 건립 후 개인 명의의
기금장학회가 설립되며, 본회 장
학금 수여식 때 기금을 출연한 동
문이 직접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 (치대·HPM)·鄭正佶(행대
원)·金日洙(AIC)·黃義萬
(ALP)·全烘奎(SGS)·表相基(관
무회)·安秉勳(관언회)·河基成(부
산지부)·金恒元(제주지부)·姜奎
錫(영동지부)·金明俊(전안지부)·
洪相福(포항지부)·朱昇澤(안동지
부)동문 등 14명에게 공로패를 수
여했다.

만찬 중에는 모교 權舜赫전임
총장, 趙 淳민족문화추진회장, 李
吉女부회장이 새해 덕담을 했으
며, 鄭興淑생활대동창회장이 김소
엽 시인의 ‘그대는 아름다운 사람
을 연주하는 바다’라는 축시를 낭
송했다.

權舜赫전임 총장은 평북 벽동과

만 평

李 元 馥



관악언론인회 2008년 정기총회

2월 20일 (수)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서울대 언론인 출신 모임인 관악언론인회가 제6회 정기총회 및 제5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동문 언론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08년 2월 20일 (수) 오후 6시 30분
- ◆장 소 :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내 용 : ① 의안 상정 및 의결·경과보고
② 제5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

관악언론인회 수석부회장 李 炯 均

노리나무광장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맥 빠졌던 4년 전보다 훨씬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 인기가 바닥을 쳐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유력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에 인기와 관심이 집중되면서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또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엄청난 흥행요소다. 여성 대통령 탄생도 역사적 사건이겠지만, 인종 편견과 차별이 심한 미국사회에서 흑인 대통령 탄생은 생각만으로도 여러 사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

경선 초기의 ‘오바마 돌풍’이 태풍으로 이어질지 속단할 수 없지만, 그가 미국의 새 희망으로 떠오르고 최고 지도자로 다가가는 모습만으로도 놀라운 충격이다. WASP(백인 앵글로색슨계 신교도)로 대표되는 미국 주류세력과는 거리가 먼 그가 두터운 편견의 벽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은 감동적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 잠시 유학 온 케냐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바마는 다인종 사회 미국의 그늘과 꿈을

상징한다. 부모의 이혼,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도네시아에서 4년간 유년기를 보내며 다른 세계를 경험한 성장과정. 하와이로 돌아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도 곳곳이 극복하고 인권변호사를 거쳐 정치 지도자로 우뚝 선 그는 ‘인간승리’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자수성가한, 그러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의 매력은 아버지 부시의 후광으로 ‘부자 대통령 신화’를 이룩한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의 ‘외조’로 ‘부부 대통령 신화’를 꿈꾸는 힐러리의 화려한 경력에

대비돼 더욱 빛을 발한다.

그에게 젊음에서 우리나라는 신선함과 함께 지도자의 최고 덕목인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남다른 용기다. 미국민의 맹목적 애국심에 편승해 광풍처럼 몰아치던 이라크 전쟁론에 과감히 맞선 사려 깊은 결단이 돋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전쟁 바람몰이에 공화당은 물론 힐러리, 존 에드워즈, 존 케리 등 내로라하는 민주당 중진들조차 숨소리를 죽이고 쭈뼛거리며 찬성 대열에 섰을 때 그는 “군사적 해결로는 안 된다”고 용기 있게 ‘아니오’를 외친 것이다. 미 국민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깊은 울림을 준 출발점이다.

부시의 일방주의 외교와 안보지상주의가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기는커녕 미국에 대한 적대감만 키웠음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이 그에게서 ‘검은 케네디’를 떠올리고 변화와 희망을 찾는다. 무섭지만 존경심은 들지 않는 거대한 패권국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오만한 국가로 덧칠된 최근 미국의 비틀린 이미지를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꿀 수 있을까. 그의 최종 목표 달성 여부를 떠나 오바마의 약진과 가능성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열광하고, 잊혀진 미국의 장밋빛 신화-‘기회의 땅 美國’의 꿈을 되살리며 설렘과 위안으로 삼지 않을까 싶다.

‘오바마 바람’과 미국

李元燮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새해에 쓰는 시

孫基燮

(의학51-57)충남대 명예교수·시인

지난해는 유례없는 찜통 더위라
하나밖에 없는 에어컨 앞에
손자들을 데리고 앉아
아내는 과일 껍질을 벗기고
나는 그 옆에서 시를 쓰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쓴 글보다
그 광경이 더 정겹고 아름다웠다
헛기침을 해가며 연필로 자꾸만
쓰고 지우는 짓을 되풀이하는데도
바라는 글귀는 떠오르지 않고
끝내 남은 것은
찢어진 하얀 종이와
찢어진 회색회색한 나뻥이었다
해마다 하는 되풀이지만
새해에 쓰는 새 시라는
새라는 뜻에 또 기대를 걸어 본다

동문칼럼

쥐띠 해를 맞이한 주인공의 한 사람이지만 12년마다 맞이하는 순환의 의미보다는 올해는 명실상부하게 나의 해로 만들고 싶다.

학부를 졸업하고 그때는 전공도 명확하지 않았던 소비자학을 전공하겠다고 하자 당시 지도교수

셨던 李賢宰교수님께서 소비자 분야는 앞으로 20년은 지나야 우리 국가에서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셨다. 대학, 대학원 졸업 후 소비자학 전공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35년간 일해왔다. 동국대학교에서 25년간 소비자학을 가르치면서, 현장의 문제제약을 위해 소비자단체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 이처럼 소비자 문제와 동고동락하다가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 원장에 부임했다.

개발 경제시대에 피해받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여 년 전에 설립됐던 소비자보호원이 작년에는 소비자의 주권 실현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서 소비자원이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과 법규 설명과 같은 서비스는 소비자 불만 자율 관리 프로그램(CCMS: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민간 소비자 단체와 업체에 이관해 업무를 분산하고, 우리원은 2차적인 피해 구제와 집단 분쟁 조정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소비자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안전 정보·상품 테스트 정보·가격 정보·품질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의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다. 소비자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선택은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쳐 시장 감시 기능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셋째, 소비자 권익에 관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강화할 것이다. 이는 소비자 문제를 선도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를 한발 앞서 인지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朴明姬

(가정교육67-71)

한국소비자원 원장

또 다른 꿈을 향해

란 명칭으로 변경됐고 이제 소비자의 권익을 실현하는 기관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실현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해 소비자원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콜센터 구축을 통해 소비자 상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상담의 표준화와 패턴화, DB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면 민간 소비자 단체와 기업체의 업무 분산을 통한

넷째, 집단분쟁조정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의 전문적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해 개별적 피해 보상에 중점을 뒀던 기존의 피해 구제 기능을 한 단계 향상시킬 것이다. 소비자기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지난해 7건 접수돼 영향력을 입증한 바 있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도전과 행복의 연속이었다. 쥐띠 해를 맞이해 나는 또 다시 한국 소비자원 원장으로 ‘소비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銀

편집주간 許瑄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鎮鎭, 李炯烟,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국내 최고 M&A·국제거래 담당 변호사로 활약

동문을 찾아서

申 熙 澤 모교 법학부 교수

바야흐로 로스쿨 전성시대다. 지난해 7월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일명 로스쿨 법안)이 통과된 후, 최근 로스쿨 정원이 2천명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고, 로스쿨 설립신청을 한 대학에 대한 실사가 끝나는 대로 배정이 있을 예정이다. 1월 26일엔 법학적성시험(LEET) 예비시험이 서울 한양공고에서 실시된 바 있다.

모교 또한 모교대로 로스쿨 설립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 작업을 완료해 놓고 있다. 함박눈이 펄펄 내린 1월 18일 낮 로스쿨 개설을 준비 중인 申熙澤(법학71-75)교수를 만나러 관악캠퍼스를 찾았다. 申동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에서 3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10월 법대 교수에 임용됐다.



대 담 : 본보 尹在錫논설위원(국민일보 논설위원)

— 방학 중인데 학교에 계시네요. 요즘은 주로 뭘 하십니까.

“정시모집 응시생들 논술채점 하다가 왔어요. 대학교수 생활이 만만치 않네요. 일이 너무 많아요(웃음).”

— 학교에 오게 된 동기는 뭐였나요.

“25세에 사법연수원을 마쳤으니 65세까지 40년 동안 법조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년은 군복무로 국가에 봉사했고, 27년은 현장에서 실무를 했으니, 학교에서 10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스쿨 법안이 통과됐고, 그 즈음 학교에서 연락이 와 결단을 내렸죠.”

시장에 대한 고려없이 로스쿨 정원 정해

행정부·공익단체에서 일 할 인재 키워야

— 하지만 김&장에선 대표 일꾼이 떠나

간다니 만류가 심했을 텐데요.

“가더라도 5년만 더 있다 가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성기 때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왕설래 중에 처음에 만류하셨던 金永珪(법학60-64)박사님이 제 결심이 굳을 것을 보시고 교통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김&장이 우리 법조계에 할 수 있는 최대 기

여라고 생각하자. 우리가 실무로 사회에 기여했지만, 로스쿨을 하는 마당에 우리가 길러낸 실무전문가를 학교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시더라고요.”

—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金변호사님이 캐치해 주셨네요.

“처음 변호사가 되기 위해 결심했을 때 그 당시 한국사회의 롤모델이 됐죠. 사법연수원 졸업 동기 58명 중 3명이 김&장 로펌에 들어가 화제가 됐죠. 그때 국제거래 부문 변호사가 합쳐서 20~30명이 안됐어요. 27년이 지난 지금 1천명이 넘었으니 굉장한 변화죠.

로스쿨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실무가들이 다시 학계로 들어오고 서로에게 자극이 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시작을 했지만, 막상 결정을 하고 학교에 오니깐 미치는 과급효과가 있더라고요.”

— 급여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부인은 반대하지 않았나요.

“집사람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으니 이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응원하더군요.”

— 일전에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정원의 2배인 4천명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게 눈에 띄더군요. 정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는 법조계 반대가 심해서...”

— ‘밥그릇’ 때문인가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크게 변하는 것이다 보니 충격을 완충하지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최근 총동창회가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에 이어 발전기금 모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동문들로부터 기부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申熙澤교수가 ‘동문을 찾아서’ 대담 중에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해서 동문들로부터 기금을 흔쾌히 기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어서 이 난에 정리해서 참고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나에겐 모교가 둘 있다. 하나는 서울대요, 다른 하나는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 예일대다. 두 학교 모두 나에겐 소중한 곳이고, 또 나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한 모교다.

하지만 기부금 모금 측면에서 본다면 두 학교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일대는 학교 규모에 비해 기부가 활발한 대학이다. 기금 규모에서 하버드대(3백50억 달러) 다음으로 많은 2백25억 달러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연 20%의 투자수익률을 시현해 오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국립이라는 학교 정체성과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2천억원이 채 못되는 기금 규모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예일대에 기부가 활성화되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자. 내 경험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우선 예일대는 동문으로 하여금 ‘당신은 자랑스런 예일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준다는 점이다.

동창회는 물론, 총장·학장 명의로 정감 있는 내용의 편지가 수시로 답지한다. 학교의 경사나 괄목할 만한 업적에 대한 고지는 물론, 학교의 보직 이동, 심지어 동창회 임원을 뽑는 일 등 시시콜콜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동문에게 알려준다. 물론 이들이 지극 정성으로 동문을 챙

서울대와 총동창회는 어떤가? 내가 동문임을 수시로 일깨워주지도 않을 뿐더러 동창회비나 발전기금을 내라는 독려도 너무 사무적이다. 감동은 주지 않고 ‘지로용지’만 보낸다.

나는 서울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워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 예일대 유학도 서울대에서 바탕을 다졌기에 가능했다. 서울대 간판 덕에 한국 최고의 로펌에서 근무하는 특권도 누렸다. 그럼에도 솔직히 예일대에 더 애착이 가는 것은 바로 두 학교가 동문에게 쏟는 관심과 정성

“소통만 잘 하면 기금은 저절로 들어온다”

기는 목적이란 솔직히 ‘돈 쟁기는 것’, 즉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돈을 내라고 하기 전에 학교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동문임을 수시로 일깨우고, 예일대 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생각을 자주 갖게끔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예일대 동문으로서 ‘나도 모교를 위해 뭔가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마련이다.

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작년 10월 모교에 와 보니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동창회가 굉장히 활성화돼야겠다고 절감하게 됐다. 동문들이 동창회를 통해서 학교에 지속적인 애정을 표시하고, 그 일환으로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모교의 위상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앞서 예일대의 사례에서 열

거한 사항을 그대로 실천하면 될 것이다.

학교 집행부는 동문들로 하여금 학교 사회에 적극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당신이 우리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시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동문 덕분에 우리 학교는 이민큼 발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멋진 캠퍼스 건물과 유수의 연구진, 세계적인 업적 등을 동문에게 수시로 일깨워주는 것이다. 소통이 먼저다. 돈 내는 것은 다음이다. 아니 소통만 잘 하면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소통도 되기 전에 돈부터 내라고 하면 거부반응만 생긴다. 동창회는 동창회대로 역할을 찾아 부지런히 동문들의 참여를 일깨워줘, 특히 젊은 동문들에 대한 스킨십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결국은 이들이 저수지다.

동문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고, 그 자체로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기부는 후배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문의 오블리게이션이기도 하다. 나의 기여로 학교가 더욱 우수한 리더를 더 많이 길러낼 수 있다는 기대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도 기부는 동문이 반드시 행해야 할 덕목이다.

“이제는 10년 동안 학생들과 공부할 생각”

☑ - 새 정부에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으론 일단 2천명 선 그대로 같 것 같아요. 사법시험 개념으로 보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서울·지방 배분 비율에 맞춰 조만간 성적표가 나올 텐데, 서울소재 대학 중 준비가 잘 된 데가 탈락하고 그 보다 못한 지방대학이 지정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 이력서를 보니 ‘아름다운 가게’ 자문위원도 하시는데, 아름다운 재단에 공익변호사 공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참 대견하고 귀한 일 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도 늘리고 많은 사람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법조인 수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포인트는 맞습니다. 로스쿨 시스템으로 가면서 종전 대륙법 마인드를 고수하면 맞지 않죠. 대신 큰 틀에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미국은 변호사 자격으로 모든 게 커버되는데, 우리는 변호사 영역을 좁혀서 브 못하는 분야가 여럿 생겨났죠. 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 이 모든 분야를 커버하려면 변호사 수를 늘려야죠.”

- 사실 로스쿨 출신이 이른바 재조와 재야 둘만 생각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스스로의 운신 폭도 좁히는 거고..

“학생들이 대부분 사법부만 생각하는데, 사실 입법이 얼마나 중요할까. 또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한다면 로스쿨 출신들이 행정부로도 많이 가야죠. 미국식으로 모두 개방형으로 풀어놓으면 그게 진짜 뭔가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를 애매하게 제한해놓고 애매한 특권을 주면, 모두 사법부에 들어가 바글바글하기만 하고 도움이 될 수 없죠.”

- 동창회와 모교 입장에서 서울대의 위상과 미래가 제일 큰 관심거리인데요.

“일단 1백50명 정도 배정 받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너무 적은 인원이지. 하버드대가 5백50명이고, 보통 3백명 정도는 되요. 스탠퍼드대가 1백50명, 예일대가 1백70명 정도이고요. 1백50명 상한선에 비해 지금 각 대학은 엄청난 과잉 투자를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등록금은 낮추라고 하나... 역설적으론 미국보다 더 좋은 학습 환경이 될 겁니다(웃음). 계산 없이, 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50명, 1백명 등 정치논리로 확정된 거죠.”

- 현행 1천명 규모의 사법시험 제도 안에서 서울대생 합격률이 다른 단과대학과 합쳐서 3백여 명인데, 로스쿨 정원 2천명 선에서 1백50명이면 상당히 위축되고 영향력이 저하될 것은 볼 보듯 뻔하죠. 법조인의 3분의 1을 배출하는 학교 시스템에다 13분의 1만 배정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아닌가요.

“서울대의 집중도가 높다 보니 밖에서는 불합리한 네트워크(학연)가 있다고 보고 이성적 접근을 안 하는 경우죠. 상식과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과도한 이상주의와 평등분배로 가다 보니 서울대의 전통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대



최신 원서 없는 중앙도서관 지원 절실

졸업식서 대통령상 수상 사법연수원 7기 수석

학부생들이 전국 로스쿨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혼성주의로 학부 출신이 타 대학 로스쿨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역시 어느 학부 출신이냐로 카운트 할 수 있죠.”

- 로스쿨 인가기준과 관련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학교마다 실사에 대비한 투자가 엄청난 것 같아요. 모교는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단 말이지.

“그렇죠. 로스쿨 인가기준을 지수화·점수화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서울대 법학지에 많이 기고했는데, 법학지는 학술진흥재단에 등재가 돼 있지 않아서 점수 계산이 1백%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국내 법률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법학지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러니죠. 그래도 워낙 연구업적이 많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교직 밖에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고, 한편으로는 성질에 안 맞기도 해요. 장서가 몇 만 권 이상이면 몇 점, 그래서 갑자기 장서를 사들이고 난리예요. 형식적인 게 많죠.”

- 온라인 시대에 장서를 언제 뒤적이며 보나요.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필요한 법률지식, 판례를 보기가 쉽고 정보도 방대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법률처럼 전문적인 분야 지식은 온라인에 없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모교 중앙도서관을 보니 최신 원서가 적더군요. 동창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지요. 해외투자, M&A 분야는 4~5년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거든요. 찾아보면 2006~2007년 버전은 거의 없고 1990년대 버전이에요.”

- 중세·고대 유물을 끌어안고 있는 셈이군요. 김&장 도서관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김&장이 훨씬 낫죠. 그래서 몇 권은 김&장에서 빌려왔고 몇 권은 주문을 했어요. 책 한 권이 2~3백 달러나 되니 교수 능력으로 그걸 다 사 보기가 쉽지 않죠. 도서관 쪽 지원이 잘 돼야 합니다.”

- 로스쿨 각론으로 들어가 보죠. 로스쿨이 문을 열면 그동안 생소하고 수요가 없던 분야가 늘어날 텐데, 과연 그런 것을 가르칠 교수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일례로 지방에 있는 어떤 로스쿨 학생이 환경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는데 그런 게 과연 가능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학교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안정적으로 다양한 교수진도 갖출 수 있고 계속 영입도 할 수 있죠. 교수 1명당 기껏 10명밖에 가르칠 수 없는데, 1백50명 정원이라면 재정이 약한 학교는 전담교수 대신 시간강사를 쓸 수밖에 없죠. 지방의 경우는 첨단 분야를 가르칠 강사 구하기도 힘들 거

예요. 80년대 초 예일대에서 공부할 때 국제거래 쪽은 예일대도 전담 교수가 없어서 뉴욕에서 왔어요. 하버드대처럼 5백50명 정도 되면 그런 분을 위촉할 수 있죠.”

-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로스쿨 유치 경쟁에 뛰어든 대학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어찌됐든 로스쿨을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이지요.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기존의 교수들을 다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죠.”

- 학교 위상을 가늠하는 잣대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우리사회의 가치 체계가 너무 단 일화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상위 5개 대학을 뽑을 때 매년 드는 프린스턴대에는 로스쿨이 없어요. 물론 아이비리그에 대부분 로스쿨이 있지만 브라운이나 다트머스대 같이 로스쿨 없이도 특화된 학교가 많죠.”

- 모교 로스쿨에 영어강의가 계획돼 있

습니까.

“있어요. 저도 이미 영어특강을 두 번 했어요. 그런데 국제투자, 국제거래 등은 영어강의가 의미 있지만 다른 강의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학생들의 수준이나 교수 입장에서 원어민이 아닌 이상, 한국법을 영어로 강의할 때 내용이 얼마나 잘 전달되고 수강생이 얼마나 잘 이해할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 국제거래, 투자, M&A는 외환위기 이후 일상다반사적인 현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교수님의 역할이 더 중요할 텐데요.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앞으로 몇 년간은 우리나라의 해외 M&A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거예요. 학부에서 경제 경영을 전공한 사람들은 조금 접근하기 쉽고, 인문학을 했던 친구들은 본인이 추가 공부를 해야 할 겁니다. 또 학교에서 배우더라도 로펌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현장을 체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 예나 지금이나 법조인이 약한 자, 소외된 자의 편에 서서 눈물을 닦아주는 선행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선 아직 그런 풍경이 일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 키워원께서 공익변호사 얘기도 하셨지만, 그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공부를 하고 관점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뿌린 씨가 큰 물결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일상화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완비돼야 해요. 공익기관에서 인턴십을 하면 학교에서 기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식으로요. 사실 우리 학교에도 공익인권법센터가 있어요. 서울대 로스쿨이라면 그런 점에 있어서 더 무거운 의무감을 가져야죠.”

- 개인 스토리 좀 얘기하죠. 법학과 3학년 말에 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졸업식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사법연수원 7기 수석 졸업을 하셨죠. 당시 법원이나 검찰 쪽으로 가는 게 관행이었는데.

“사법연수원 마치고 군에 갈 때는 검사를 할 생각이었어요. 동기들은 ‘너는 공부를 좋아하니 교수를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할 때 金永珪변호사님께서 저를 보자고 하시더니 법원·검찰도 중요하지만 그쪽을 할 사람은 많으니 당신은 재야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시더군요.”

- 사법연수원 동기와 대학 동기로는 누가 있네요.

“연수원 동기는 盧武鉉대통령, 鄭相明(행정68-72)前검찰총장, 金能煥(법학71-75)·安大熙(행정73입)대법관 등이고요. 대학 동기는 모교 申東雲(법학71-75)·崔秉祚(법학71-75)교수와 田秀安(법학71-75)대법관, 林采珍(법학71-75)검찰총장, 행정부 쪽은 재정부 차관을 지낸 朴炳元(법학71-75)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있지요.”

-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후배들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시길 기원하셨습니다.

“먼 길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李五峰논설위원·정리=金南柱기자〉



대전·충남지부동창회

명예회원 위촉·유공 동문 시상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1월 9일 대전시내 유성호텔에서 朴國洙(법학67-71)특허법원장, 신임 충남대 宋容浩(건축70-78)총장 등 동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차 정기이사회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吳應準회장은 인사말에서 “에고 이스트가 되지 말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모교와 국가를 위해 베푸는 서울대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동창회에 3년간 지원금 등을 출연해온 대전지역의 대표 소주업체인 (주)선양 金光植사장을 첫 명예회원으로 위촉하고 감사패를 전했다. 금사장은 지역발

전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왔으며, 두 아들이 모교에 재학 중이다.

또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張奎燮(농화학61-65)·姜富鉉(수의학72-76)부회장, 金澤男(자원공학74-79)배재대 지회장, 林鍾洙(치의학81-87)치대동창회 총무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鄭宗澤(행정54-58 충청대학장)고문과 朴國洙(법학67-71)특허법원장의 축사, 尹亨遠(교육행정56-60)前충남대 총장의 건배제의가 있었다.

‘리포루엔텐 앙상블’의 가곡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서로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했다.



대구·경북지부동창회

70여 동문 ‘새롭게 도약하자’ 다짐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李弘中)는 지난 1월 16일 대구시내 프린스호텔에서 7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池弘源(법학58-64 변호사)·金乙永(행정59-65 서한 회장)고문, 李弘中(토목공학67-71 화성산업 사장)회장, 崔敬鎭(의학68-74 신파부과의원장)부회장, 崔城植(경제57-65 前대구과이넌스 사장)감사 등이 참석했다. 또 金範鎰(경영69-73)대구광역시장, 경북대 盧東一(정치68-72)총장, 金錫俊(토목공학69-73)·郭成文(국사72-76)국회의원, 黃永穆(행정70-74)대구지법원장, 文孝男(법학74-78)대구지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金範鎰시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동문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며 “대구광역시와 새롭게 도약하도록 서울대 인으로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축가로 경북대 劉小瑛(성

악84-88)교수가 林賢植(기악64-68)교수의 반주에 맞춰 ‘Oh, Mio Babbino Caro’를 열창했다.

포항지부동창회

건강특강·동호회 홍보

포항지부동창회(회장 李鍾漢)는 지난 1월 22일 포항시내 송도 코모도호텔에서 신년회를 개최했다.

李鍾漢(화학62-69)회장은 “원로 선배들과 80~90학번대의 후배들까지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처럼 다양한 동문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텍 李昌惠(금속공학53-57)명예교수의 건강 특강에 이어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바둑회, 70~90학번대 모임인 관포회와 동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산악회 등 동호회 소속 동문들의 뜨거운 홍보전이 펼쳐졌다.

동창회는 2월 중 포항 출신 모교 신입생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격려·칭찬·덕담 어우러진 신년회



태국지부동창회

신임 회장에 金光魯동문 선임

태국지부동창회(회장 李正雨)는 지난해 12월 12일 태국 방콕 소재 Four Wings Hotel에서 25명의 동문을 포함해 70여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결산·사업보고,

임원 선출, 신입회원 환영회 및 여흥시간, 기념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총회에서 3년간 지부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李正雨(독어교육64-71)회장의 뒤를 이어 신임 회장에 金光魯(법학65-69 LG전

자 동남아지역 대표)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金회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회원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울대인의 자긍심을 세우고, 모교 사랑에 동참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만찬 후 여흥시간을 통해 50학번에서부터 90학번대에 이르기까지 전 동문이 어울려 다양한 게임을 즐기며 친교의 시간을 나눴다.

영동지부동창회

장학빌딩 기금 모금에 동참

영동지부동창회(공동회장 洪東善·安任洙)는 지난 1월 23일 강릉시내 ‘루싱’에서 金榮洙(상학47-56)·崔容桓(축산48-52)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安任洙공동회장은 “눈이 많이 내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반가운 동문들을 많이 뵈게 돼 기쁘다”며 “올해는 연 4회 이상의 정기모임과 가족 동반 야유회, 속초 및 태백지역에서 친목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과 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의

동문 소재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1월 15일 KBS 강릉방송국의 ‘아름다운 이웃돕기’에 성금을 보낸 바 있는 동창회는 이날 총동창회 장학빌딩 건립기금 출연과 연회비 납부를 독려하면서 영동지부 명의로 본회에 장학빌딩 건립기금을 전달했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영원무역 成耆鶴(무역66-70)회장이 협찬한 의류 등 꾸집한 기념품을 받았다.

김포지부동창회

가족동반 야유회 예정

김포지부동창회(회장 金鍾逸)는 지난 1월 7일 김포시내 감나무집에서 崔基南(영어교육52-56)前강남대 교수, 崔烈東(의학72-79)한별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金鍾逸회장은 “올해에는 실내모임에서 벗어나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야유회를 계획 중이오니 정성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창회는 3월에 김포 출신 모교 신입생을 환영하는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천안지부동창회

즉석 동창회 기금모금

천안지부동창회(회장 金相珉)는 지난 1월 22일 천안시내 알라딘뷔페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金相珉(축산54-58)회장은 지부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金회장, 朴壽福(농생물56-61)동문 등이 즉석에서 기금을 쾌척했다.

만찬 후 劉鳳軒(성악68-75 나사렛대 교수)동문의 인솔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팔육상회’로 자리를 옮긴 참석자들은 劉동문의 피아노 연주와 崔寶今(성악65-69 병천중 교감)동문의 감미로운 가곡을 들으며 정담을 나눴다. 〈表〉

전북지부동창회

사진·시화전 및 판소리 감상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1월 7일 전주시내 중식당 백리향에서 동문 부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야유회에서 찍은 전북지역 명승지 및 유적지 사진과 우석대 全永喆(영문54-65)명예교수의 詩가 어우러진 시화전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남원시립합창단 崔冠(성악83-87 테너) 상임 지휘자와

2007년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학생부에서 장원을 한 김난이 양이 작은 음악회를 선보여 활기찬 신년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金完柱(정치66-70)전북도지사가 저녁식사를 제공했으며, 洪性大(수학57-63 본회 부회장)고문이 총동창회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에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창회는 2월 25일 정오 전주시내 백리향에서 모교 신입생 초청 환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지부·단대동창회 힘찬 출발!

농생대동창회

상록탑기금 등 7억 모아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韓仁圭)는 지난 1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54학번 동기회 주관으로 임원회의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尹勤煥(농학50-54)전임 회장을 비롯해 80여 동문이 참석해 2008년 사업을 논의하고 덕담을 나눴다.

韓仁圭회장은 “지난해 동문들이 회비와 상록탑 건립기금으로 7억 원 이상을 출연했는데 이는 지난 60년간 출연했던 전체 액수와 맞먹는 금액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 자리를 빌려 동문 여러



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 앞서 동창회 창립 6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작고한 은사 및 회원 1천2백여 명에 대한 추모식을 가졌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54학번 동기회 林龍澤(농경제54-62)회장은 “이미 타계하신 은사와 회원의 넋을 기리고

늦게나마 예를 갖추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창회는 오는 5월 17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상록탑 제막식, 명예의 전당 개소식,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시상식, 기념문집 봉정식 등을 열 계획이다. 상록인 대상 후보 추천 마감은 2월 28일. <문의 : 6300-8630>

간호대학동창회

尹학장 간헐 출마 격려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李倫京)는 지난 1월 3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교 간호대학 尹順寧(간호69-73)학장을 격려하기 위해 1백여 동문이 참석했다. 차기 간협 지도부 선거는 오는 2월 20일 서울 셰라톤호텔에서 열리는 제7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

李倫京회장은 “늘 동창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모교를 운영하고 계신 尹順寧학장의 간헐 회장 출마를 적극 지원한다”며 “물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서울대의 단결력을 보여주자”고 동문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ACPMP동창회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

건설산업최고전력과정동창회(회장 李鍾洙)는 지난 1월 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로즈룸에서 1백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李鍾洙회장 신년사, 모교 공대 姜泰晉학장 축하, 케이크 나눔 및 건배제의,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 및 공로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ACPMP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남이건설 李政洙(2기)회장, 대우건설 徐綜郁(3기)사장, 경남기업 安淳喆(3기)사장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또 조찬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한 10명에게 우수회원패, 임원으로 수고한 회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孫貞理 作

‘煙家3-왜가리’, 조합도,
25×25×126cm, 2006.

<작가약력>

- ▲60~64년 모교 응용미술과 졸업
- ▲62~67년 대한민국미술전
- ▲68~70년 모교 대학원 졸업
- ▲79~06년 한국미술협회전
- ▲81~07년 한국공예가협회전, 한국현대도예가회전
- ▲82~85년 향토작가초대전
- ▲90~95년 60동문전
- ▲94년 한국현대도예30년전
- ▲95~04년 한국미술교육학회전
- ▲96년 한국가톨릭미술협회전
- ▲06년 미얀마초대전, 한일교류전
- ▲현재 한국교원대 제4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ACPMP동창회는 올해 관악음악회(5월), 골프대회(9월)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AIP동창회

학술상·감사패 수여

최고산업전력과정동창회(회장 姜錫大)는 지난 1월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모교 李長茂총장을 비롯한 동문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제2회 ‘우수 교수 학술상’ 수상자로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趙在英(공업화학75-79)교수를 선정,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을 시상

했다. 이 상은 姜錫大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제정됐다.

姜회장은 인사말에서 “무엇보다 휴먼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21세기에 동창회 모임을 통해 동문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이제 5월이면 AIP의 제10대 집행부가 출범하는데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모교 최고산업전력과정 교수를 지낸 孫郁(기계공학63-67)·金鍾權(산업공학71-81)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식행사 후에는 모교 미학과 吳昞南(미학59-63) 명예교수가 ‘현대 미술과 창의성’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좌로부터 林采珍·李相赫·琴震鎬·胡文赫·李載厚·玄勝鍾·李奭熙·孫一根·丁海昌등문

법과대학동창회

신년회서 영전동문 축하패 수여

법과대학동창회(회장 李載厚)는 지난 1월 24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현 집행부 임원 및 전직 회장단을 비롯해 준회원으로 인준한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동창회 회원 10여 명을 포함해 3백여 동문이 참석해 덕담과 더불어 로스쿨 시행을 앞둔 모교의 발전을 기원했다.

李載厚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창회의 존립 목적은 동문간 친목을 도모하는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

모교를 돕는 일”이라며 “법대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는 이때 모교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법대 발전재단 기금 모금에 모든 동문이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동창회는 지난해 영전한 한국관공사 吳志哲(법학69-73)사장, 林采珍(법학71-75)검찰총장, 서울산업대 盧俊亨(법학72-76)총장, 환경부 李圭用(법학74-78)장관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장기자랑, 경품추첨을 끝으로 신년회를 마무리했다.



상과대학동창회

빛내자상에 成耆鶴·韓惠洙동문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濤)는 지난 1월 22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 趙淳·沈昞求·林鍾哲명예교수, 郭守根경영대 학장, 李榮燦경제학부장을 비롯해 安台鎬·金鍾淳·韓英國·沈晶求·李相得동문 등 3백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洪龍濤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모교가 세계 10대 MBA를 목표로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며 “모든 동문들이 동창회 구호인 ‘뭉치자·돕자·빛내자’를 실천해 모교 발전을 이룩하자”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영원무역 成耆鶴(무역66-70)회장, 韓惠洙(경제67-71)국무총리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인 ‘빛내자상’을 수여했다. 특지장학금을 출연한 金正銀(경제52-56)·李鍾衍(경제52-56)동문 등 30여 명은 ‘돕자상’을 수상했다.

동창회는 지난해 총회, 등산대회, 회보 제작 등의 명목으로 2억 1천7백여 만원을 사용했으며 6억 2천7백여 만원(사무실 건물 등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창회 장학재단인 향상 장학회는 결산자료에서 5억여 원의 기금을 운영해 지난해 40명의 재학생에게 1·2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학대회(5월), 바둑대회(10월), 회보 발간(격월간),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젊은층 동문 흡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연대원동창회

모교서 신년 모임 가져

언론정보학과 대학원동창회(회장 金貳煥)는 지난 1월 3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모교 교수 및 대학원 재학생을 초청해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南>

기계동문회

신년회 1백60여 명 참석

기계동문회(회장 崔昇喆)는 지난 1월 11일 서울 을지로6가 두산타워 레버락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孔大植·禹仁性부회장, 관악회 明泰鉉이사를 비롯해 1백60여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崔昇喆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눈이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워준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올 한 해도 동문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눈부시게 발전해 가는 고급정보화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가는 일에 우리 공대인들이 앞장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부회장으로 승진한 崔희장이 이날 음식을 모두 제공했으며 두산인프라코어



동문 직원들이 서빙을 맡아 수고했다. 崔회장은 “우리 회사에 기여전공 동문이 75명이며 이 가운데 임원이 2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 순서에 잡혀있던 특강도 생략한 채 선후배가 한데 어우러져 술잔을 기울이며 모든 동문이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HPM동창회

보건제도 국제심포지엄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동창회 산하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원장 姜普英, 이하 한보연)은 지난 1월 14일 서울 장충동 소피텔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년교례회를 겸해 ‘한국보건의료제도 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

에는 모교 보건대학원 文玉綸(의학63-67)교수를 비롯해 일본국립보건원 오카마토 에쓰지 교수, 싱가포르 국립대 카이홍 푸아 교수, 대만대 통 리양 치앙 교수, 러시아 의료정보화조직중앙연구소 미카이로바 올리아 소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姜普英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단순한 목적사업의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건의하고 한보연의 위상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동창회 회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관계자 3백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한보연은 친목 모임을 위주로 하는 동창회 성격에서 탈피하고자

지난 98년 설립된 동창회 산하 사단법인으로 현재 7백여 명이 회원으로 있으며, 국가보건의료정책연구와 의료봉사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치·외교학과동창회

상임부회장·감사 선임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洪聖穆)는 지난 1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가네트룸에서 신년하례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원로 鄭一永동문을 비롯해 具範謨·金駒·金學俊전임 회장, 韓甲洙·南時旭·姜賢旭·崔時仲·金炯旸동문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洪聖穆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동창회장을 맡게돼

영광인 한편 누를 끼칠까봐 걱정도 된다”며 “서로 만나면 즐겁고 그래서 더 만나고 싶은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추진사업으로 ▲기별동기회와 직능단체 활성화 ▲기금증대를 위한 동창회 법인화 검토 ▲젊은 동문 참석을 독려기 위해 조찬 세미나를 점심 혹은 저녁으로 변경 논의 ▲모교에 정치학과와 외교학과를 정치외교학부로 통합 건의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동창회 결산보고에서 지난해 회비 1천3백여 만원 등을 포함 8천9백여 만원을 거뒀으며 기금은 3억7



천7백여 만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회의, 세미나, 회보 제작, 모교 지원 등으로 8천4백여 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 개선에서 상임부회장

에 모교 외교학과 尹永寬(외교71-75)교수, 감사에 기획예산처 柳浩榮(정치76-80)총괄기획관, 모교 외교학과 全在晟(외교83-87)교수를 선임했다.

불어교육과동창회

朴玉茁교수 팔순 축하

불어교육과동창회(회장 趙弘來)는 지난 1월 5일 서울 역삼동 상제리제 뷔페에서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60여 동문이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특별히 팔순을 맞은 朴玉茁(불문48-52)명예교수를 초청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4백여 동문으로 구성된 불어교육과동창회는 매년 신년회, 야유회, 동문레터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매년 모교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 학과설립 50주년을 맞이해 기념사업을 준비 중이다.

생물교육과동창회

安泰仁회장 추대

생물교육과동창회(회장 朴仁國)는 지난 1월 4일 서울 장충동 소피텔앰배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모교 생명과학부 安泰仁(67-74)교수를 추대했다.

신임 安泰仁회장은 “동문 모든 분들이 동창회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년하례회를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金遵敏·張楠基·鄭海文 명예교수를 비롯해 80여 동문이 참석해 스승에게 인사드리고 가까운 선후배들이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생물교육과동창회는 매년 1월 정기총회를 갖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홈커밍데이 등의 행사를 열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abe.snu.ac.kr)를 통한 교류도 활발하다. (南)

콩트 릴레이

BMW 삼총사

崔 一 玉
(미학65-69)소설가



고교시절부터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떠나 없이 지내던 삼총사가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 날의 자리를 주선한 사람은 김영길 전무였다.

“나, 드디어 며느리 보게 됐다.”

불판에서 고기가 몸을 뒤틀며 익어가고 술잔이 한 순배 돌 즈음 김 전무가 입을 열었다.

“거 들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래 낯은 잡았어? 언제야?”

이흥기 박사와 서형민 교수는 입을 모아 반가움을 나타냈다.

“지난 일요일에 양가 상견례 했지. 색시 집에서 낯을 잡아 알려주기로 했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가라고 그렇게 다그쳐도 들은 적도 없더니만, 애비 끈 떨어지고 나자

“지수도 잘 있지? 공부 할 만하데? 이나 저나 내가 걱정이다. 우리 영아는 언제나 같는지. 요즘 여자들 결혼 안 가는 게 무슨 유행인지… 아예 싱글로 살 작정인 것 같기도 하고…”

서 교수가 말꼬리를 흐리며 앉은자리가 불편한지 다리를 이리저리 꼬아보다 결국은 몸을 일으켜 제자리걸음을 한 서너 번 하고는 방석 세 장을 겹쳐 놓고 걸터앉듯 올라앉았다.

“의자에 앉은 곳으로 갈 걸… 내 정신 하곤… 자네, 많이 불편하면 자리를 옮길까?”

20년 전 교통사고로 대퇴부 고관절 교정 수술을 받은 후 왼쪽 다리는 그나마 온전하

듯 받아 놓은 술잔 두 개를 연거푸 마셔버렸다. 이 박사도 서 교수도 할 말을 잊은 낭서의 빈 잔에 술을 따르며 긴 한숨을 흘렸다. 단숨에 술잔을 비운 서 교수가 빈 잔을 힘없이 식탁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거 왜, 자네 탓이라 생각하나. 지흥이 미국 유학까지 시켜줬으면, 그게 집 값이나 버금가는 일이지. 어디 그뿐인가. 지수 학비 또한 만만찮을 테고 말이야. 그래도 자네들은 나보다 낫지. 몸이 이 지경 되고 학교를 떠난 지 벌써 20년일세. 그나마 시간강사 자리와 번역거리가 떨어지지 않은 것만도 감지덕지지만. 이런저런 내 형편 때문에 영아가 결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집 안 갈 거라는 말도 한 번 제대로 못한다네.”

“난 자네가 학교에 매여 있었던 것보다 번역가로 이름을 날린 게 더 잘 됐다고 생각하네. 전화위복이지. 자네 일에 정년이 있나, 뒷사람 눈치 볼 일이 있었나. 실력 하나로 제 자리를 당당하게 지켜온 것 아닌가. 영어 번역이다 하면 자네가 최고라는 건 출판사도 언론도 다 인정하는 일이고. 자네 손을 거쳐 나오는 책이 일 년에 몇 권인가. 자네는 건강만 허락한다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일찌감치 잡은 셈 아닌가.”

이 박사 또한 쌓이고 쌓인 것이 많은지 서 교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인지 부러움인지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냈다.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서양화02-07)동문

게 건졌으나 끝내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된 서 교수는 찌푸린 미간을 펴며 서둘러 손사래를 쳤다.

“아냐, 아냐. 그냥저냥 지낼 만 한데 날씨가 꾸물거리거나 추운 날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탈 날 나인데 이만한 것도 다행이지 뭐. 자, 자. 내 얘기 그만하고, 지흥이 결혼 이야기나 마저 듣자. 그래 색식감은 뭐 하는 아이야?”

말은 태연하게 건넌 만 하다고 했으나 그의 앓음새는 도무지 편해 보이지 않았다.

“같은 회사 홍보실에 있어. 제 댄에는 집을 장만한 후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었나 봐. 말이 쉽지 집 장만이 어디 한두 푼으로 되는 일인가. 이제 돈이 얼추 됐다 싶으면 저만치 도망가고, 한 해 더 모아보자 하면 또 그림의 떡이 되고. 그러니 늦어질 수밖에. 결국 장인 자리의 으뜸장에 백기를 든 거지. 아들 가진 사람이 자식 명의로 집 한 채 못해 주고 대기업 이사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도 나 하나뿐일 꺼야. 다, 내가 무능해서 그렇지 뭐.”

김 전무는 자조 섞인 웃음을 술로 씻으려는

저야했던 내 마음을 알기나 하나? 이 병신아, 넌 왜 자동차 하나도 없냐? 하는 시위 같았다고 하면 자네들은 내 자격지심이라 하겠지. 자네들도 이제 지공 선생이지? 그렇지?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지공 선생 말일세. 난 지하철이 좋아. 그게 없었으면 이 너른 서울 바닥에서 어찌 살았겠나. 어떤 기사가 그렇게 제 시간에 딱 맞춰 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오겠나?”

“그런 말 마. 부장에서 이사되고, 이사에서 상무 전무로 올라가느냐 탈락하느냐 하는 경쟁은 공중에 매달린 외줄타기나 다름없네. 결국 전무란 자리로 마감한 나를 보게. 입사 동기 중에서 사장까지 올라간 놈은 아직도 현역이야. 말이 허울 좋은 專務지. 그거 돈 ‘전’자 없을 ‘무’자 錢無야. 전무. 전무 2년에 보따리 싸들고 집에 돌아오니 남은 거라곤, 쉬우니 선물이라ப்ப시고 건넌 양주병하고 약 봉지만 잔장 가득하더군.

건설회사 전무자리, 그거 좋은 자리지. 한 탕 해 먹자 맘먹었으면 지흥이 집뿐이었겠나? 그러나 내가 회장에게 줄이 있나 뭐가 있나. 그 바닥 평판 하나로 버틴다 생각하고 맑게 또 맑게 살아서 그나마 전무까지 간 거지. 오죽 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까지 했겠나. 잡혀가지 않을 정도로 해 먹으면 안 되냐고. 난 거울처럼 맑게 살았네. 자동차? 그거 회사 나오고 나니, 내 것이 아니더구먼. 마누라 타던 차 한 대 있지만, 그것도 폐차 직전이야. 사람은 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지. 나도 오늘은 지하철 타고 왔네.”

“오늘 왜들 이러나. 이게 바로 늙은 징조구먼. 내 자리 다음 세대에게 내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거, 그게 바로 늙음이야. 나라고 아니꼬운 거 없고 서러움 없었겠나? 말이 박사지, 철학 박사 그거 뭣에 쓰나. 철학이 학문의 으뜸이라는 금지 하나로 살아왔지만, 돈이 제일인 이 세상에서 내가 설 자리는 교단 밖에 없었네. 교수평가제에서 손가락질 안 받으려면 피눈물나게 읽고 쓰고 해야 살아남지.

난 요즘 내 마지막 강의를 멋지게 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지내네. 얼마 전에 강단에서 숨진 그 교수가 가장 부러워. 무대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배우가 가장 아름답지 않은가? 그나마 아내가 약국을 하고 있어서 자네들처럼 막막하지는 않으니 지는 해의 서러움은 다 마잔가지 아닌가. 나도 오늘은 지하철 타고 왔네. 우리 좀 더 자주 만나세. 이제 남은 건 시간과 친구밖에 없잖은가.”

이 박사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듯 했다.

“이제야 우리 모두 BMW를 타게 됐구먼. 우리의 BMW를 위해 건배하세.”

서 교수가 술잔을 들어 올렸다.

“BMW라니?”

얼굴이 노을빛으로 붉게 익은 두 친구가 이 무슨 생경스러운 말인가 싶은지 술기운에 흐려진 눈을 깜빡이며 바라봤다.

“버스의 B, 지하철 메트로의 M, 걷기 즉 워킹의 W. 이게 바로 BMW일세. 자네들 BMW 타 봤나? 난 평생 BMW만 타고 다녔지.”

“BMW를 위하여…….”

술잔을 부딪치며 목소리를 돋우는 그들 삼총사의 붉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그러나 눈가에 어리는 그늘만은 감출 수가 없었다. BMW 소리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

버스의 B,

지하철 메트로의 M,

걷기 즉 워킹의 W.

이게 바로 BMW일세.

자네들 BMW 타 봤나?

난 BMW만 타고 다녔지

”

장가를 간다니, 이것도 다 제 팔자지….”

“그래 사돈 될 사람은 맘에 들고?”

서 교수가 김 전무의 빈 잔에 술을 따르며 넌지시 물었다.

“맘에 들고 말고가 뭐 있나. 두 집 다 개훈이라 성사된 것만도 다행이지.”

“일단 축하 건배부터 하자.”

이 박사가 상 앞으로 다가왔으며 술잔을 들어 올렸다. 축하한다는 덕담이 오가고 쏜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지금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라니까 둘이 사귀는 지는 꽤 됐어. 놈이 결정을 못하고 질질 끌기만 하니 그 집에서 난리가 났지. 할건지 말건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장인 자리가 놈을 불러다 호통을 쳤나 봐.”

“그럼, 사귀는 애가 있으면서도 네 속을 태웠단 말이나? 도대체 뭣 땀에 애인을 숨겨 놓고 시간을 끌었대? 너도 너지만, 계수 씨가 좋아하겠다. 압튼 잘 된 일이다. 우리한테 남은 일이 이제 아이들 치우는 것밖에 더 있나?”

이 교수가 마치 제 일이라라도 한 양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김 전무의 잔에 술을 따랐다.

특별기고

세계 초일류 서울대를 위하여

새해 벽두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새 정부에서 대학에 자율을 주겠다는 소식이다. 인 수위에서는 입시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넘기 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대학 의 자율을 묶고 있는 많은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사립대의 경우 입시를 제외한 많은 부분에 자율이 주어져 있지만, 국립대 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므로 적극 환영한다. 서울대는 이에 맞춰 지난 1월 18일 ‘서울대 자율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세계적인 대학의 육성을 미래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세계 초일류 대학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즉 세계적 대학의 보유 여부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 세계적 대학이라 함은 전 세계 우수 석학 및 학생들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 우수 석학이나 학생의 해외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대학을 뜻한다.

미국의 MIT나 Stanford대의 경우에는 선행 기술 연구를 통해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유지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세계적 대학의 육성에 있어서 미국 못지않는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Exzellenzinitiative’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초일류 대학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제까지 고집해 왔던 국립대의 평준화 정책이 국

가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2006년부터 10개 대학을 선정해 4년 동안 19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1990년대에 이미 211공정, 985공정 등을 통해 칭화대(세계 40위)와 베이징대(세계 36위)를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했고, 가까운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국립대를 법인화시키면서 동시에 파격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동경대는 세

계 17위, 싱가포르국립대는 세계 33위의 세계적인 명문대로 만들었다. <대학순위는 2007년 영국 ‘더 타임스’ 평가>

그러나 국내는 어떠한가? 서울대가 지난해 51위를 기록해 그런대로 체면을 세웠을 뿐 2백대 대



金亨俊
(재료공학71-76)
모교 기획실장

“장기발전 전략·자율성·재정 확보”

학에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KAIST 하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세계는 급속하게 가까워지는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미래학자들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는 미래의 대학은 세계 초일류 대학 10여 개만이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대학은 이 초일류 대학에 종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한국에도 초일류 대학이 육성되지 않으면 한국의 대학은 외국의 초일류 대학에 종속돼 지식과 기술의 종속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국가경쟁력의 상실

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면 세계 초일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초일류 대학으로 진입한 외국대학의 발전 모델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의 필수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대학의 장기 발전전략, 둘째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그리고 셋째가 재정확보이다. 서울대는 이미 지난해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2015년 세계 30위권, 2025년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에서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주겠다는 반가운 약속을 지켜준다면 서울대는 이제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필요 요소 중 두 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인 셈이다. 그러나 마지막 필수 요소인 재정확보는

제일 어려운 요소로 대학 스스로가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가 2025년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출재원을 7.3조원(2007년 기준으로 2.9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세입재원은 서울대가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하에서도, 2025년 3.8조원(2007년 기준으로 1.5조원)으로 세출과 세입의 격차가 3.5조원(2007년 기준으

로 1.4조원)이나 된다. 대학이 할 수 있는 발전기금의 적극적인 확충, 수익사업의 활성화, 연구비의 적극적 수주 등 다양한 재원 확충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세출재원의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는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몫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한국의 고등교육지원액은 국가 GDP의 0.6%에 불과해 OECD 국가의 평균치 1.1%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있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정부지원금은 동경대의 1/4, 싱가포르국립대의 1/2.2 수준에 불과하며, 학생 1인당 정부지원금으로 보면 동경대의 1/4.6, 싱가포르국립대의 1/2.4에 불과하다. 특히 총예산 중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서울대는 25%에 불과한데, 싱가포르국립대는 48%, 베이징대는 36%, 동경대는 55%(정부지원 7천6백억원 외에도 3천억원의 경쟁자금지원이 별도로 있음)로 아시아권의 세계 정상급 대학의 정부지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를 도입해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현재 수준의 배로 확대하고 이를 경쟁적인 방법으로 대학에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특히 국내 대학 중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울대가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자율화 추진위원회’ 발족

자율성 확대로 대학 경쟁력 강화

모교소식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1월 18일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세계 초일류 대학 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대학교 자율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했다.

추진위는 자율성 제고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의견수렴, 추진과정 점검 등 자율화방안 전반에 대해 검토한다.

또 대학 자율에 맡기는 ▲포괄주의 학사관리제도 도입 ▲책임운영제를 기반으로 하는 행·재정지원 ▲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입시 및 학생 선발권 보장 ▲교육과 연구의 질 관리를 위한 자율관리 시스템 강화 ▲대학평가 시스템 정비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대 등을 자율화의 중점 사항으로 다룰 계획이다.

추진위는 추진위원과 자문위원, 실무위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金信福부총장이 맡고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전임 학장을 포함한 원로급 교수가 참여한다.

실무위원회 자문위원으로는 평의원회 朴杉沃의장 등 9명을 위촉하고 산하 실무위원회는 金亨俊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부처장, 부실장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모교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성과 인격을 겸비한 인재양성과 연구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2025년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이라는 장기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좌로부터 두산건설 黃仁眞부사장, 농대 朴恩雨학장, 金信福부총장, SPC그룹 許英寅회장, 李長茂총장, 林光洙회장, 權斗煥대학원장, 자연대 吳世正학장, 평의원회 朴杉沃의장

SPC 농생명·기초과학 연구동 기공

건립비 78억 들여 내년 6월 완공

모교는 지난 1월 14일 관악캠퍼스 농생명과학대학(2백동)과 자연과학대학(5백동) 사이에 건립 예정인 ‘SPC 농생명과학 및 기초과학 연구동’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식사에서 “이번 기공식은 작년 10월에 세계 대학 총장들과 함께 선포한 ‘서울 선언문’ 내용을 실천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모교의 비전을 실천하고 한국과학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훌륭한 교육 연구기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동은 연면적 7천3백70㎡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약 78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신축 공사비는 지난해 SPC그룹 許英寅회장이 출연한 건립 지원금 45억원과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조달된다.

태영건설 40억원 기부 법학도서관 등 건립비로

모교는 지난 1월 17일 태영건설이 법학도서관 등 로스쿨 관련 시설 건립 비용으로 4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기부금 중 15억원은 법학도서관 건립에, 나머지는 다른 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이번 출연은 SBS 尹世榮(형정56-61 본회 부회장) 회장이 평소 모교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모교가 시설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로스쿨 건립 비용 81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교육위원들이 “도서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모교 예산안을 거부했다. (榮)

玄澤煥교수 나노기술 상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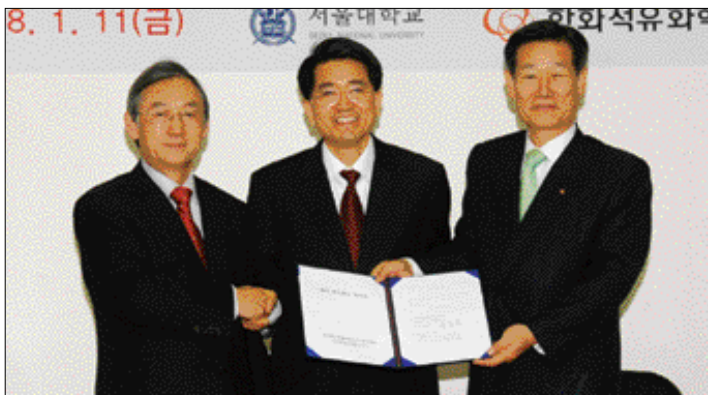
한화석유화학으로 43억에 이전

모교 산학협력재단(단장 鞠 標)과 한화석유화학(대표 許元準)은 지난해 12월 27일 ‘균일한 나노입자 대량생산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이전 및 독점적 사업화 실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11일 모교 행정관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기술이전은 과학기술부의 기초연구비(창의적 연구진흥사업) 지원을 받아 대학에서 수행한 연

구가 세계 최고 논문으로 검증됐고, 이 원천기술이 43억원의 기술료를 받고 국내기업으로 이전돼 상용화가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과학기술부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대 화학생물공학부 玄澤煥(화학83-87)교수는 지난 2004년 12월 균일한 나노입자를 대량으로 값싸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세계적 저



좌로부터 李長茂총장, 玄澤煥교수, 許元準대표

널인 ‘네이처 머티리얼’지에 발표했다. 이 기술은 200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뉴 핫페이퍼

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나노입자는 MRI조영제, 차세대

고용량 자기 저장매체, 나노 전자소자, 차세대 디스플레이 형광체 등 다양한 분야에 실제로 상용화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재료다.

나노입자의 성질은 입자 크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입자 크기를 똑같은 크기로 균일하게 제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술이전 결과 국내 기업을 통해 균일한 나노입자가 대량으로 생산돼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되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나노기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榮)

세계석학·우수교수 초빙 확대

기금조성 및 안정적 재원 필요

모교(총장 李長茂)는 현재 세계 우수 대학들과 비교해 턱없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교의 대학순위, 논문게재 순위 등은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지속적인 국제화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정 지원의 부족함 속에서도 국내 최고의 연구 성과를 산출하고 있지만,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한 ‘국제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모교 국제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국제화 변화의 바람은 타 대학에서도 불기 시작, 발 빠른 학교들은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

연세대는 한 대기업으로부터 석좌교수 기금을 유치하고 지난해 8월부터 중점적으로 해외 석학 초빙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린스턴대 에릭 매스킨 석좌교수와 현재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후텐버그 교수, 계량경제학 분야의 세계석학인 미시간대 피터 슈미트 교수 등과 최근 겸임교수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건국대 또한 연구중심 대학에 역점을 두고 노벨 화학상을 받은 미국 스탠퍼드대 로저 콘버그 교수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과학센터 조레스 알표로프 센터장을 석좌교수로 초빙하고 향후에도 우수한 외국인 교수 채용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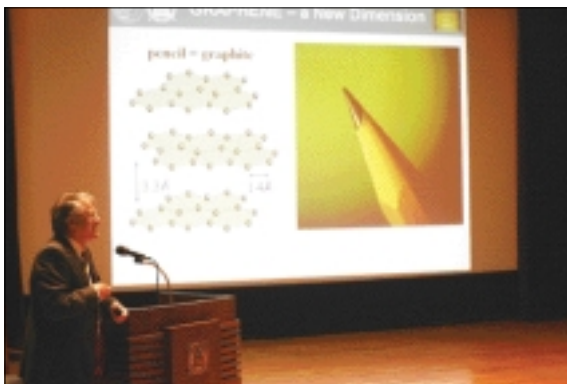
모교도 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세계석학 및 우수 외국인 교수의 초빙을 확대해 이들의 연구 활동 및 강의, 학술회의 등을 통해 선진 이론과 새로운 강의 기법을 도입하고 모교 및 구성원의 학문적 성취를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인 모교의 특성상 세계 수준의 우수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별도의 재원을 정부로부터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저명한 교수 채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비용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초임교수에 비해 절반 가량의 연봉, 높은 주거비용, 낙후된 연구 환경 등으로 인해 세계석학들이 쉽사리 한국행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석좌교수 1인 연간 지원비는 1억5천만



2007년 모교-막스플랑크연구소 공동 심포지움에서 강연 중인 클라우스 폰 클리칭 박사(막스플랑크 고체연구소장, 1985년 노벨 물리학 수상)

원 내외로, 30억원 규모의 석좌교수 기금이면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모교는 2010년까지 총 20명의 세계석학들을 초빙해 연구·강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6백억원 규모의 독자적인 기금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세계적인 석학 초빙은 우수 학생 유치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 및 연구 분위기를 쇄신할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교의 세계석학 초빙은 후원자의 이름을 명예롭고 소중하게 기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원사업이 될 것이다. 모교를 사랑하는 후원자들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우리 후학들을 위해 기금 모금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모교 발전기금 제공)

‘한국학 석사과정’ 프로그램

태국 쯔랄롱꼰대와 공동운영

모교 국제대학원(원장 朴泰鎬)은 지난 1월 28일 태국 명문대인 쯔랄롱꼰대(사진)와 한국학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쯔랄롱꼰대가 한국학 석사과정을 새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하고 한국 내 가장 좋은 한국학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모교에 공동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번 협의는 한국학이 중국학·일본학에 비해 외국으로부터 관심이 낮았으나 최근 아시아의 한류열풍에서 비롯된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문화에 대한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모교 국제대학원과 태국의 명문 쯔랄롱꼰대의 한국학 석사과정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양국은 향후 학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태국은 이번 모교와 한국학 석사과정 신설로 전 세계에 일고 있는 한국학의 연구 열기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선점하고, 한국은 한국의 역사·사회·문화를 동남아시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또한 이번 한국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태국을 대표하는 모교와 쯔랄롱꼰대의 우수한 학생들이 두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모교 李長茂총장과 국제대학원 朴泰鎬원장 등은 태국 쯔랄롱꼰대를 방문해 협정문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프



쯔랄롱꼰대는 자국인 태국에서만 아니라 인근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유능한 학생들을 뽑아 30명의 정원으로 첫 한국학 석사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매학기 15명의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먼저 모교를 방문해 국제대학원에서의 한국학 전공과정 수업과 언어교육원에서의 한국어 강좌를 이수한다.

이후 모교의 한국학 전공 교수가 방학기간 동안 쯔랄롱꼰대를 방문해 심화된 한국학 교과목을 가르치게 된다.

한편 지난 2007년은 한국과 태국이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처럼 오랫동안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 학문적 교류는 활발하지 못했다.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선결돼야 할 문제들을 논의했다.

향후 모교는 쯔랄롱꼰대의 학생들이 모교 국제대학원에 와서 한 학기 수업을 듣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및 수업료는 1년에 최소 1억원, 기숙사비와 한국어 교육비까지 포함하면 1년 동안 총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국제화 시대에 모교가 외국의 명문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학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출범하는 것은 모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가 깊다”며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들이 모교의 국제화, 한국학의 국제화를 이루는 데 시금석이 되는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을 위한 소요 재원 모금에 적극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모교 발전기금 제공)

李泰鎮교수의



서울대

②백악(북악) 아래 세우려던 첫 왕립대학

1875년 일본과의 국교수립 후 高宗은 일본의 서양문물 수용실태 조사를 위해 朝士視察團을 파견했다. (1881년) 이때 도쿄대학, 도쿄 사범대학, 도쿄 여자사범대학 등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뤄졌다. 학제, 학생과 교원의 수, 교과과정, 도서관 및 구비도서 현황 등이 조사 보고됐다. 모든 것이 청년 군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고종은 1882년 4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뒤, 그 해 말 同文學을 설립해 영어교육을 시작했다. 그리고 1883년 보빙사 洪英植의 건의에 따라 미국제도를 본받기로 하고 곧 미국정부에 군사교관과 영어교수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1886년 9월 할버트, 길모어, 벙커 등이 도착하자마자 育英公院을 전동에 설립했다. 영재를 키우는 공립학교란 뜻의 이 학교를 미국인들은 왕립대학교(Royal University)라고 불렀다. 군주와 정부는 이 학교를 대학으로 발전시킬 생각이었다.

1882년 1월에 고종은 일본 나가사키에 체류하던 魚允中에게 중국 텐진으로 가서 李東仁을 만나라는 지령을 내렸다. 조미조약의 체결로 바뀌게 될 조선과 청국의 관계에 대한 예비 접촉을 지시했다. 즉 청국과 미국은 이미 수호조약을 체결한 관계인데, 이제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하면 3국은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므로, 청과 조선은 왕래 사신제도 대신 常駐 사신제도로 바꿀 준비를 해야 되

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표시하게 했다. 상주 사신 곧 공사제도의 도입은 5백년간의 조공책봉체제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는 총독 행세를 하게 했다. 그는 중국 상인의 조선 내 상행위를 전면 방치하는 한편 외국무역 관련 세수를 상해 해관으로 들어가게 했다. 조선정부의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져 개화사업은 운영난에 빠졌다. 육영공원도 미국인 교수들에게 봉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 1893년까지 이름만 겨우 유지했다.

한편 일본은 1885년 내각제를 출범시키면서 정치적 안정 속에 군비확장에 진력했다. 1894년 동학농민군 봉기 때, 일본은 청국과

성을 목표한 것으로, 일본의 관심도 친일 관료 양산에 있었다.

고종은 일본군의 서울 진주와 개혁 강요를 불법 내정간섭이라고 하여 듣지 않았다. 한 달 여 승강이 끝에 7월 23일 일본군은 야반에 경복궁을 침입해 고종을 인질로 삼고 대원군을 앞세워 軍國機務處를 급조해 ‘개혁’을 강행했다. 일본은 이를 뒤 청일전쟁을 일으켜 이 무법천지의 상황을 포성 속에 묻었다. 이것이 이른바 갑오경장의 시작이었다. 왕은 왕비와 함께 이 위기를 미국과 러시아의 힘

의 미국 선교사들과 왕비 사이에 미국식 대학 설립이 비밀리에 협의됐다. 제중원 의사로 군주 곁을 지키던 에비슨, 언더우드와 그의 부인 릴리어스, 스크랜튼 등이 협의 대상이었다. 이들이 남긴 편지에 따르면 국왕이 설립 자금 3만 달러를 준비하되, 일본측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미 선교부 사업처럼 위장했다가 최종 단계에 왕립(국립)대학임을 밝히기로 했다. 왕과 왕비의 노력은 육영공원의 실패를 만회하는 뜻도 있지만 미국, 러시아의 지원 아래 ‘문명국’의 조건을 속히 갖추려는 의지를 실었다.

이 계획은 부지를 백악(북악산) 아래 어디로 정하고, 건물 신축과 교수진 확보 준비까지 협의하던 차에 일본이 기밀을 알아차리고

일본의 방해로 설립계획 공중분해



〈사진 左〉 건청궁의 최초의 서양식 건물 觀文閣. 뒤에 백악 자락이 보인다. 이 양관은 일본인들이 왕비별궁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대학 설립을 위한 선교사들과의 접촉도 이곳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건청궁은 1887년 전기가 처음 시설됐듯이 당시 개화사업의 중심지였다. 근처에는 신식 무기 제조창인 번사창이 4동이나 건설됐다. 〈사진 右〉 무위영 군사들이 고종을 호위해 건청궁 방향으로 가는 광경. 복장은 아직 재래식이지만 일본제 무라타 소총으로 무장했다.



청국의 대관들은 이 제안에 접해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이탈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크게 놀랐다.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지켜보던 청국은 2개월 뒤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청의 천자는 조선 군주에 대한 책봉주로서 이 반란을 좌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대를 파견했다. 청국은 대원군 압송 후에도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속방’ 조선에 군림하

의 동시 출병 조건 아래 서울에 군대를 진주시켰다. 농민군 봉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내정개혁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로 직행한 이유였다. 저들이 준비한 개혁안에는 학교제도에 관한 것도 들어 있었다. 일본식으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차례로 설립하고, 학생 중 우수한 자는 일본 유학의 기회도 준다고 했다. 당시의 신식 교육제도는 관료 양

을 빌려 이듬해 5월까지 점진적으로 극복했다.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일본의 위협을 견제해 달라는 고종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러시아 공사도 삼국간섭의 여력으로 조선정부에 대한 일본의 강압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조선주재 공사로 현장을 지휘하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쓴잔을 들고 귀국했다.

일본의 강압에 대처할 때, 서울

방해해 실패로 돌아갔다. 일본은 저들의 지원으로 귀국한 朴泳孝가 몰래 이 계획에 관계한 것을 알고 그를 왕비시해 음모자로 고발해 왕실을 혼란에 빠트리 일본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저들의 손으로 왕비를 시해했다. 왕립대학 설립 계획은 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었다.

〈李泰鎮(사화61-65)모교 국사학과 교수·인문대 학장〉

부인·1남2녀·사위·처남 등 8명이 동문

“생일 등 기념일마다 모교 지원금 보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야근을 하며 일요일 오전까지 근무한 후 집으로 향하는 李亨道(화학공학61-67 삼성전기 고문)동문. 몸은 피곤하지만 집에서 일주일동안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에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세 자녀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어느새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삼유회사와 KIST를 거쳐 제일모직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되면서부터 휴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유일하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일요일 오후였죠. 꼭 빼먹지 않았던 것이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저는 수학, 아내는 영어를 봐주는 일이었습니다.

봐줄 것이 없는 날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하거나 부부가 마당에 심어놓은 꽃을 가꾸며 뛰어 노는 아이들을 지켜보거나 요리를 할 때 젓가락을 들고 튀김을 하는 등 집에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가족에게 잘 보이고픈 편안한 아버지’가 됐죠.”

30여 년간 李亨道동문이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에서 기업인으로 또 대표이사 시절엔 종업원들과 회사의 비전을 실천하며 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CEO로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부인 朴孝順(영어교육66-70)동문 역시 부부간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잘 이끈 덕분일까. 세 자녀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서울대를 졸업했다.

1남2녀 중 장남 李宗燦(공업화학91-95)동문은 모교 공업화학 석사과정 졸업 후 미네소타대에서 바이오케미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해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인 EMD SERONO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맏이인 장녀 李宜周(의학90-96)는 성형 전문(동문과 큰사위 具亨鎭(의학87-93) 시력교정 전문)동문은 서울삼성병원 레지던트 시절 만나 결혼에 골인, 5년 전 강남에 눈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李宗燦동문, 두 명 건너 李炫周·李宜周·具亨鎭·李亨道·朴孝順동문

에미소안과를 개업해 부부원장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具亨鎭동문은 구수한(?) 외모에 말과 글 솜씨마저 구수해 방송3사를 비롯해 얼굴이 소개되지 않은 매체가 없을 정도로 각종 안과 정보를 ‘친절’하게 소개하는 의사로 알려져 있다. KBS 일요스페셜 ‘20년만의 리포트-386의 초상’편에도 출연했으며, 무가지 신문에도 ‘구형진의 EYE CLINIC’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해 오고 있다고.

“쉬운 일보다는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炫周는 심신이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다루기 힘들다는 흥부외과 전문의로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바쁜 시간을 쪼개어 모교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조카 尹智愛(언어02-06)동문 역시 언어교정과 관련된 재활치료를 전공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경북대 의학전문대

학원에 입학해 의사의 길을 걷게 됐다. 특히 尹智愛동문 가족 중에는 부친과 오빠가 모두 부산대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봉직하고 있다.

그밖에 동문으로는 李亨道동문이 태광산업 울산지부에서 대학 선배이자 직장 선배로 함께 근무한 큰 처남 朴正浩(화학공학59-63 前대광산업 상무)동문이 모교 출신이다.

“형님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 준 분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아내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방학 때가 되면 큰오빠를 보기 위해 울산으로 내려왔는데, 처음 보는 순간 ‘아,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졸업할 때까지 진득이 기다리며 가족들을 끝까지 설득해 평생의 반려자로 만들었죠.

반도체 사업을 기획하고, 삼성 애니콜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과 삼성전자 연구소장을 맡아 아날로그세대에게 디지털의 개념을 인식키는데 부단히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이력이 기술자나 연구원으로 조금은 무난하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기업의 CEO로 정년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어주고 가족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처여사(함께 인터뷰에 나온 부인 손을 꼭 잡으며)께 감사합니다.”

최근 李亨道동문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장

李亨道(화학공학61-67)동문 가족

부인

朴孝順(영어교육66-70)

큰처남

朴正浩(화학공학59-63)

큰사위

具亨鎭(의학87-93)

장녀

李宜周(의학90-96)

장남

李宗燦(공업화학91-95)

차녀

李炫周(의학93-99)

처조카

尹智愛(언어02-06)

학벌당 건립기금 5천만원을 출연했다. 7년 전엔 모교 발전기금 1억원을 내놔 이후 매년 기금을 출연해 왔다.

“저와 아내 모두 학창시절 장학금을 받으며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도움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주자는 의미에서죠. 애들 결혼식 때 남은 축의금을 출연한 것을 계기로 가족이나 손주 생일, 박사학위 수료식 때마다 조금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대화도 많아지고, ‘다음엔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李亨道·朴孝順동문은 이번 주말에도 양평에 자그맣게 지은 집 마당에 심어놓은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둘러볼 계획이다.

“저는 아이들을 믿어요. 부모로서 서포트만 해주면 알아서들 각자 제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얼굴 찡그리지 않고 ‘잘 하고 있다’고 한 마디 해주면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아내도 열심히 일하는 저를 믿고 집안 일에 매진하니 가정 이 화목하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요? 일하느라 바쁜 아이들이 손자 좀 봐달라, 조연 좀 해달라 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할애하고, 그 다음엔 우리 부부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야죠.”

〈表〉

동 정

수 상

▲金相慶(정치45-49 삼양사 회장·분회 고문)=지난 1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재경전라북도민회로부터 제4회 자랑스런 전북인상 수상.

▲朴權相(영문48-52 前한국방송공사 사장·경원대 석좌교수)=지난 1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재경전라북도민회로부터

제4회 자랑스런 전북인상 수상.
▲閔庚甲(회화53-57 예술원 회원)=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미술부문) 수상.

▲李漢東(행정54-58 법무법인 남명 대표변호사)=지난 1월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경북고 동창회로부터 제17회 동문대상 수상.

▲趙舜衡(법학54-64 국회의원)=지난 1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 고총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

▲權 誠(법학60-66 前헌법재판소 재판관·법무법인 대륙 상임 고문)=지난 1월 1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경기고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수상.

▲韓昇洙(행정63졸 유엔기후변화 특사)=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국위선양부문) 수상.

▲田文堉(경제64-71 고려해운항공 사장)=지난 1월 16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송문중·고교총동문회 행사에서 제20회 자랑스러운

송문인상 수상.
▲任洪彬(국문63-67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지난 1월 16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송문중·고교총동문회 행사에서 제20회 자랑스러운 송문인상 수상.

▲安大熙(행정73집 대법원 대법관)=지난 1월 16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송문중·고교총동문회 행사에서 제20회 자랑스러운 송문인상 수상.

▲金炳彥(언어78졸 소설가)=지난 1월 30일 서울 예장동 문학의 집·서울에서 소설집 '남태평양'(문학과지성사刊)으로 제13회 한

무속 문학상 수상.
▲朴宗信(섬유공학75-79 모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학부장)=최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한국섬유공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 수상.

▲李義鉉(AIP 20기 대일특수강대표·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지난 1월 11일 연세대 신년인사회에서 '자랑스런 연세공학인상' 수상.

▲申相勳(ACAD 47기 신한은행장)=지난 1월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로부터 제17회 다산금융상 수상.

▲李國東(ALP 6기 대한통운 사장)=지난 1월 14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유공자 정부 포상 전수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안과 의사가 공대 교수로

의대 출신 徐鍾模 동문 이색 채용

지난 1월 14일 국내 공과대학 최초로 의사출신 徐鍾模(의학 90-96)교수(사진)를 모교 공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채용했다.

徐鍾模교수는 그동안 동국대 의대 부속 일산병원에서 안과진료를 하는 한편 모교 대학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시각장치를 연구하면서 의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徐교수는 3월부터 정보전자공학, 생명공학, 의학이 융합된 바이오일렉트로닉스 연구와 강의 맡는다.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공대 교수직을 택한 徐교수는 "의학자가 공학을 모르고 공학자가



의학적인 기반이 없어 서로 오해와 시행착오가 생긴다"며 "의학계와 공학계를 연결하는 매신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모교 공대 姜泰晉학장은 이번 채용과 관련해 "교수들이 자기 전공분야와 과목에만 매달려서는 글로벌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학과간 벽을 허물고 융합하며 나아가 교수와 대학 모두 살 수 있다"고 전했다.

'필즈상' 히로나카 교수 초빙

자연대 수리과학부 석좌교수로

지난 1월 13일 하버드대 수학과 히로나카 헤이스케(廣中平祐)명예교수(사진)를 모교 자연과학대 수리과학부 초빙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히로나카 교수는 1954년 일본 교토대를 졸업하고 1960년 하버드대에서 대수기하학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64년 '특이점 해소 정리의 증명'을 완성해 1970년 국제수학자총회(ICM)에서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았다.

히로나카 교수는 3월부터 3년간 학부에서 '대수기하' 과목을 가르치고 대학원에서는 논문 지도를 맡게 된다.

모교 자연대 吳世正학장은



"히로나카 교수 영입은 수학 같은 기초과학 분야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더 많은 해외 석학을 유치해 모교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히로나카 교수 영입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려는 모교 李長茂총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榮>

인 사

▲白樂院(의학44-51 인제학원 이사장·분회 고문)=지난 1월 7일 崑山 安昌浩선생기념사업회 회장에 선임.

▲金光雄(행정58-62 모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지난 1월 19일 시사주간지 '시사IN' 대표이사 겸 발행인에 선임.

▲李清洙(정치59-63 前KBS 해설위원장·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사무총장)= 지난 1월 17일 국제정보협회 한국 회장에 선출.

▲李茂根(농생물60-64 前경일대 총장·모교 농업교육과 명예교수)= 지난 1월 11일 부산 동명대 제5대 총장에 취임.

▲孫郁(기계공학63-67 前삼성인력개발원장·삼성SDI 상담역)= 지난 1월 13일 농심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

▲申勳(수학교육63-71 금호아시아나그룹 건설부문 부회장)= 지난 1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재경광주고 총동문회

제12대 회장에 취임.
▲孫鶴圭(정치65-73 前경기도지사)= 지난 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합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대

표에 선출.

▲金龍潭(법학66-70 前광주고법원장·대법원 대법관)= 지난 1월 21일 법원행정처장에 임명.

▲李熙範(전자공학67-71 前산업자원부 장관·한국무역협회장)= 지난 1월 15일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장에

선임.
▲文昌克(정치68-72 중앙일보 주필 겸 부발행인·본보 논설위원)= 지난 1월 2일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제

11대 이사장에 선출.
▲田尤秀(물리교육69-73 공주고대 교수)= 지난 1월 15일 공주고대 음악관 연주홀에서 제5대 총

장에 취임.
▲鄭燦龍(언어70-74 前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서남해안포럼 상임대표)= 지난 1월 9일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원장(사장급)에 임명.
▲李基秀(대학원70-72 고려대 법학과 교수·한국독일학회장)=

지난 2월 1일 임기 4년의 고려대 제17대 총장에 취임.
▲金龍煥(농화학77-81 신진타코리아 영업본부장·상무)=

지난 1

월 1일 신진타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朴贊熙(서양사학78-82 前국민일보 정보생활부 차장·민주당 홍보위원장)= 지난 1월 16일 민주당 공동대변인에 임명.

▲金漢中(대학원84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지난 2월 1일 연세대 제16대 총장에 취임.

▲朴進(경제83-87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근 임기 2년의 미래전략연구원 제3대 원장에 선임.

▲金宇錫(ACAD 49기 前한국은행 감사·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지난 1월 17일 제일회계법인 회장에 선임.

행 사

▲金璟東(사회55-59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지난 1월 24~25일 '한국사회의 미래와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워크숍 개최.

▲柳永益(정치55-60 연세대 석좌교수)= 최근 19세기 후반 조선과 미국·일본간의 외교·문화교류를 다룬 영문 저서 'Early

Korean Encounter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출간.

▲金載熙(회화56-60 한국미협 회원·서양화가)= 지난 1월 3~8일 인도 데라둔의 장로회 신학대에서 'Love India- 빈 방 있습니까?'를 주제로 전시회 개최.

▲金東鎭(기악63-67 前서울시향 수석·클라리네스트)= 오는 2월 17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멘델스존, 모차르트 등의 작품으로 클라리넷 독주회 개최.

▲李相茂(농학67-71 FAO 한국협회장)= 국내 유일의 농림축수산업 관련 국제협력 단체인 FAO 한국협회를 운영하면서 월간 '세계 식품과 농업' 발간.

▲張倫碩(법학68-72 국회의원)= 지난 1월 9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대강당에서 '장윤석의 영주 그리고 여의도 이야기' 출판

기념회 개최.

▲鄭用德(식품공학69-73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 지난 1월 17일 서울 상록회관에서 '한국 법질서 및 대외정책 60년'을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張矢遠(경제70-74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지난 1월 14일 법무부와 '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관학 협력 협약' 체결.

▲安泳娜(회화80-84 서원대 교수)= 지난 1월 9~15일 서울 인사동 선화랑에서 '꽃인가 꽃이 아닌가'를 주제로 개인전 개최.

▲김나정(기악94-98 부천시향 제1바이올린 부수석)= 지난 2월 9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비에니아프스키, 셰링, 아렌스키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명복을 빕니다

관악회 南仲九회장



관악언론인회 南仲九(정치 58-64) 회장이 지난 1월 15일 오후 1시 11분 서울 아

산병원에서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8세.
南회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고교와 모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기자, 정치부장, 런던특파원, 편집국 부국장, 논설위원실장, 논설주간, 이사, 21세기평화연구소장 등을 거쳐 2006년 부서는 동아일보 부설 化汀평화재

단 이사장을 맡아왔다.

또 1994년 관훈클럽 총무와 1999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를 지냈다. 1997년부터 본보 논설위원을 맡아 동창회보 채신을 위해 진력했으며, 2005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와 2007년 관악언론인회 제2대 회장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金定姬(영문 65-69 前가톨릭대 교수)동문과 상아(산업디자인91-97 디자이너 겸 음악인)·헤아(미학93-97 웰콤 퍼블리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동문, 재준(육군 중위)씨 등 2녀1남이 있다. 장지는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선영.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이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친절한 복희씨

－ 朴婉緒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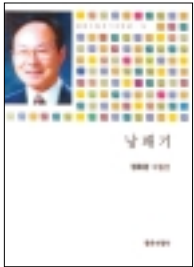
삶의 정곡을 찌르는 재치와 유머, 원숙한 지혜가 담긴 朴婉緒(국 문 50입) 동문의 신작 소설집.

2001년 제1회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한 ‘그리움을 위하여’와 영화 ‘친절한 금치씨’의 제목을 패러디한 ‘친절한 복희씨’를 비롯해 총 9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점원 겸 식모로 들어와 주인의 강탈로 맺어져 부부가 된 여주인공의 삶을 그린 표제작 ‘친절한 복희씨’를 비롯해 여유 있는 은퇴자의 평화로운 삶 속에서 젊은 시절의 갖가지 신산을 그린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마흔아홉 살’, ‘거저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가장 최근 작품인 ‘그래도 해피 앤드’ 등에서 朴동문은 삶과의 따뜻한 화해를 선사한다. 〈문학과 지성사刊·값9,500원〉

■ 낭패기

－ 鄭鎬暻 지음



좋은수필사가 펴낸 ‘현대수필가 100인선’ 시리즈의 열두 번째 작품. 이 책은 1973년 ‘수필문학’에 ‘육교부근’을 발표하면서 등단한 鄭鎬暻(국어교육52-56 여수수필문학회장)동문의 수필집으로 인간의 삶과 소망, 아름다움을 담아 정리했다.

이 책에는 ‘할아버지 첫돌 잔치’, ‘도장에 얹힌 이야기’, ‘까마귀 고기’, ‘공동묘지가 보이는 병상’, ‘비둘기와 젊은 순경들’, ‘옛장수 마음대로’ 등 40여 편의 흥미로운 작품이 수록돼 있다. 그 가운데 표제작 ‘낭패기’는 별안간 찾아온 배변 욕구로 인해 일어난 난감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소개했다. 〈좋은수필사刊·값7,000원〉

■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 李清俊 지음

6·25전쟁의 한 자락에서부터 4·19와 5·16을 거쳐 80년 광주 항쟁의 비극에 이르기까지 그 지난한 역사의 격변기를 소설로서 겪고 앓아온 李清俊(독문66졸 순천향대 석좌교수)동문의 신작 소



설집. 3편의 중편, 4편의 단편, 그리고 4편의 에세이 소설 등 총 11편의 작품이 수록

된 이번 소설집은 다양한 형식과 분량만큼이나 李清俊 소설이 복원하고 추구해온 세계가 모두 실려 있다.

이번 작품집의 특징은 에세이와 소설의 중간 단계인 ‘에세이 소설’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귀향지 없는 항로’, ‘부끄러움, 혹은 사랑의 이름으로’, ‘소설의 점괘(占卦)?’, ‘썩어지지 않은 인물들의 종주먹집’ 등 4편의 에세이 소설에서 소설과는 다른 자연스런 삶의 생기와 소박한 사유의 은밀스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열림원刊·값11,000원〉

■ 모래알의 사랑

－ 尹九炳 지음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에서 변산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尹九炳(철학63-67 前충북대 교

수)동문의 철학 우화집. 누구나 하찮게 여기는 모래알이 진정한 사랑법을 깨닫게 되기까지를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삶과 사랑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연필선이 살아있는 순박한 그림을 담아내 우리의 감성을 다독이고 있다.

尹동문은 손으로 모래를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모래알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과 쉽게 소통하지 못하고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다름 아닌 모래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다. 〈보리출판사刊·값8,500원〉

■ 와인의 세계

－ 李元馥 지음



덕성여대 李元馥(건축66입 본보 논설위원)교수의 ‘와인의 세계, 세계의 와인’ 시리즈 제1권.

이 책에서는 인류 최초의 음료인 와인의 역사에서부터 포도 품종과 와인 양조법, 와인을 접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가루와 제로, 바리 3명의 주인공이 겪는 일화를 통해 흥미롭게 풀어간다.

또한 책 뒤편에는 세계의 포도 품종과 올드와인 레벨, 와인병 크기와 호칭, 와인 수출국과 수입국, 와인 용어사전 등도 함께 담았다. 〈김영사刊·값11,900원〉

■ 천년의 왕국

－ 金勁昱 지음



한국에 술 종합학교 서사장과 金勁昱(영문90-95)교수가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봄까지 계간

‘문학과 사회’에 네 차례에 걸쳐 연재한 장편소설.

17세기 조선에서, 벨테브레 혹은 朴燕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한 네덜란드 사내를 주인공으로,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방인의 신분으로 살다 간 그의 처절한 고백을 담았다.

이 책은 3백80여 년 전,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이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했던 이들 네덜란드인들의 가난한 운명을 들려준다. 〈문학과지성사刊·값10,000원〉

공연



■ 이주혜 피아노독주회

－ 2월 25일 세종문화회관

피아니스트 이주혜(기악92-96)동문(사진)이 2월 2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독주회를 열어 베토벤, 리버만, 강순미, 브람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음연 3436-5929〉



■ 裴杞政 첼로 독주회

－ 2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첼리스트 裴杞政(기악91-95)동문(사진)이 2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에서 베토벤, 힌데미트, 마르티누,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연다. 미국 메릴랜드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裴동문은 현재 서울클래시컬 플레이어즈 수석, 청주방송 교향악단 수석, 현대 음악양상블 에클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10억원
△강신호(의학48-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희(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정식(통신공학48-56)
△김종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윤세영(행정학56-61)
△이준용(경제학56-60)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 1기)
·이자혜
△홍성대(수학57-63)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48-52)
△조기호(화학교육54-58)
·이영자(생물교육56-60)
◆2억원
△이종기(경영학69-73)
△장학순(토목공학46-50)
◆1억5천만원
△故김도창(법학43-47)
·목촌5부자
◆1억1천만원
△수학과동창회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故김영경(기계공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상용(건축학52-57)
△남정현(건축학57-61)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성훈(기계공학58-63)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졸)
△안성철(행정학58-63)
·손운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응현(섬유공학7-71)
·추정옥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정상(상학59-65)
△이준행(섬유공학48-54)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세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윤환(임학56-62)
△정충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옥(원예학83-87)
△보건대학원동창회
◆9천만원
△곽동현(법학61-65)
◆8천만원
△미술대학동창회
◆6천만원
△김윤택(경대원68-70)
△엄병윤(외교학60-64)
△화학과동창회
◆5천만원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종기(생물교육51-55)
△김중현(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박명윤(보대원74-76)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64)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종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찬진(기계공학84-89)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철원(자원공학67졸)
△이운주(의학81-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원규(농생물학58-63)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전문기상학69졸)
△이종현(경제학59-65)
△이형도(화학공학61-67)
·박호순(영어교육66-70)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허권익(의학57-63)
△하상완(치의학64-70)
△홍예표(치의학65-71)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그린장학회
△일산회
김진의(축산학59-65)
△한우리SJM
◆3천만원
△고원호(기계공학48졸)
△박홍일(영어교육60-64)
△심형운(토목공학52-56)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졸)
△이경택(섬유공학57-61)
△이광식(약학66-70)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9)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김재백(약학52-56)
△서병문(농공학69-73)
△송명호(자원공학59-65)
△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치불회
◆1천2백만원
△강웅선(치의학78-84)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이재철(법학70-77)
◆1천1백만원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신면우(의학50졸)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1천6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박준옥(약학55-59)
◆1천만원
△강신주(사회교육51-55)
△강용현(법학71-78)
△강행언(토목공학61-65)
△권동은(I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졸)
△김백준(수학62-66)
△김병린(토목공학55-59)
△김상호(법학72-76)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영재(공업화학77-81)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중(약학64-71)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중서(경제학58-63)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김진옥(기계공학55-59)
△김철수(법학52-56)
△류태환(상학48-54)
△문대원(경영학71-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덕철(기계공학57-61)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종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백사익(경성광전40-42)
△변상현(의학51-57)
△서계숙(기약56-60)
△석학진(상학58-64)
△설동섭(축산학53-57)
△성백전(토목공학52-56)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심이택(화학공학57-63)
△안경상(행정학57졸)
·김정애(가정교육54-58)
△양배덕(전기공학57-61)
△양성철(정치학58-64)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 21기)
△오용섭(임학60-66)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병재(경대원69졸)
△이병형(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석운(영어영문50졸)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인기(지질과학62-66)
△이재후(법학58-62)
△이전구(임학60-64)
△이종웅(기계공학65-69)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이창원(법학55-60)
△이형하(법학74-78)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익용(기계공학54-58)
△장자준(의학70-77)
△조길웅(HPM 14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남해(상학52-56)
△최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정길(금속공학52-56)



△최준기(조선항공57-61)
△표상기(원자력공61-65)
△하영기(정치학44-48)
△한규택(원자력공73-77)
△故함인영(기계공학48졸)
△함정호(행정학53-57)
△허 선(정치학64-68)
△허성길(경제학60-64)
△홍순자(독어교육61-65)
△황경로(AMP 11기)
△전북지방동창회
△간호대학
◆6백만원
△문규철(응용화학69-73)
◆5백만원
△문명국(기계공학73-75)
△박수복(농생물학56-61)
△신박일(약학60-64)
△윤익석(축산학49-53)
△이현구(AMP 52기)
△법대37회 동교회
△IIP동창회(김명도)
◆3백만원
△강영현(농경제학69-76)
△김영수(법학60-64)
△안재동(상학60-67)
△이동수(건축학61-66)
△이성기(행대원63-65)
△임채주(경제학55-59)
△하재규(농학53-57)
◆2백50만원
△정경모(행대원65-67)
◆2백20만원
△이준형(GLP 11기)
◆2백만원
△김재율(경성법전39졸)
△이종순(법학57-61)
△이현조(철학52-57)
△정주석(법학61-65)
△조원환(AMPP 6기)
△최창식(의학54-60)
△한규범(AMP 42기)
△허영호(전자공학71-75)

△홍석준(사회학73-77)
△황선대(법학66-70)
◆1백80만원
△노 영(의학70-77)
◆1백50만원
△김건호(수의학70-74)
△이기남(수학67-71)
△조귀장(사법학86-90)
△조현래(대학원75입)
◆1백20만원
△강효식(치의학57-61)
△김영도(축산학68-75)
△김진원(건축학68-72)
△나명훈(의학76-83)
△이갑노(의학65-71)
△이장건(전기공학49-54)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27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1백5만원
△장경만(의학80-87)
◆1백만원
△곽 승(화학공학59-63)
△마인경(지리교육60졸)
△송진해(공업교육63-72)
△신원식(행정학57-61)
△이병일(농학57-63)
△이성호(농공학71-75)
△이승구(계산통계75-79)
△이종욱(의학57-63)
△이진방(경영학67-71)
△전준수(토목공학61-65)
◆80만원
△유승규(기계설계76-80)
◆50만원
△김정욱(금속공학58-64)
△배기성(독어독문68졸)
△양홍룡(영어교육71-79)
△오지복(행대원82졸)
△윤 문(광산학61-67)
△이근석(산업공학72-76)
△채방은(기계공학65-70)

△최운열 (경영학70-74)
△함준표 (경제학79-86)
△홍선표 (기계공학53-57)
◆40만원
△김남석 (기계공학72-79)
△김문기 (기계설계77-81)
△김창윤 (수리학53-57)
△문창환 (기계설계75-79)
◆30만원
△강부건 (건축학62-69)
△강호익 (토목공학58-64)
△고명삼 (전기공학51-55)
△곽노준 (법학74-78)
△권오균 (경제학49-53)
△김경동 (사회학55-59)
△김근배 (조선항공64-68)
△김광환 (건축학72-77)
△김명년 (토목공학53-57)
△김상희 (법학69-73)
△김석수 (자원공학77졸)
△김수관 (생물교육70-78)
△김영규 (경제학55-59)
△김영철 (건축학59-63)
△김완주 (정치학66-70)
△김용균 (법학73-77)
△김재길 (법학56-60)
△김재덕 (법학73-77)
△김재훈 (법학76-80)
△김제영 (건축학71-76)
△김종식 (기계공학77-84)
△김주환 (치의학47졸)
△김철수 (경제학77-81)
△김태우 (법학73-77)
△김태희 (금속공학65-69)
△문현일 (AIC 6기)
△민신희 (약학60-64)
△박성권 (수리학74-78)
△박수기 (상학54-58)
△박순국 (사회사업59-63)
△박신구 (화학공학64-68)
△박영일 (무역학59-63)
△박재범 (경제학54-58)
△박종규 (정치학55-61)
△박종길 (약학71-75)
△박종덕 (법학56-61)
△박종명 (공업화학75-79)
△박찬웅 (의학54-60)
△박행운 (치의학56-60)
△박현수 (경영학70-77)

△박홍춘 (화학공학71-75)
△박희숙 (국어교육56-60)
△배준동 (불어불문79-83)
△배창모 (상학59-64)
△서경필 (의학57졸)
△서진근 (광신학53-58)
△선우대환 (의학71-77)
△손우태 (토목공학65-69)
△송복희 (응용미술74-78)
△송삼석 (경제학46-52)
△신국범 (건축학50-56)
△신동수 (토목공학52-56)
△신동식 (원자핵공72-77)
△심재선 (상학59-64)
△안경태 (경영학71-75)
△안상함 (무역학77-81)
△안성우 (AMP 46기)
△양영준 (법학72-77)
△양유식 (치의학70-74)
△오장수 (화학공학74-78)
△우의제 (경제학63-67)
△유동준 (잡사학56-60)
△유왕성 (의학75-81)
△유원규 (법학71-75)
△육근열 (행정학81-88)
△윤 식 (정치학58-64)
△이광노 (건축학47-51)
△이광재 (대학원78입)
△이규성 (경제학58-63)
△이달우 (전기공학48-53)
△이동성 (행정학66졸)
△이면우 (섬유공학68졸)
△이명덕 (의학67-73)
△이성태 (경영학64-68)
△이순용 (의학57-63)
△이승우 (법학75-79)
△이영건 (ACAD 45기)
△이용선 (약학50-57)
△이원성 (전자공학77-81)
△이이석 (물리학59-63)
△이의환 (영어교육64-68)

△이인자 (가정교육55-59)
△이재성 (전기공학87-91)
△이재용 (동양사학87-92)
△이창복 (섬유공학56-61)
△이해규 (행정학60-64)
△이환수 (축산학59-63)
△이효계 (행대원68졸)
△이흥순 (토목공학52-56)
△임우하 (치의학58-62)
△임종선 (법학61졸)
△장기팔 (상학56-62)
△장원영 (경제학72-81)
△전재희 (경제학54-58)
△정장현 (행정학59-63)
△정태환 (독어교육67-74)
△조병해 (상학53-57)
△조창길 (건축학59-63)
△지현택 (치의학43-47)
△진상범 (기계공학65-69)
△채경호 (기계공학70-74)
△전성관 (법학76-80)
△최 환 (정치학61-65)
△최계순 (행대원65졸)
△최명애 (회화70-74)
△최석준 (농생물학72-79)
△최익순 (경제학73-77)
△최창영 (금속공학64-69)
△최태영 (영어영문76-80)
△최효범 (전기공학77-81)
△최흥룡 (국사학57-64)
△탁갑근 (무역학71-75)
△한경수 (법학72-76)
△한상률 (농업교육72-76)
△한영석 (법학57-61)
△한용호 (건축학57-62)
△허남각 (경제학56-60)
△현승중 (법학43졸)
△홍석조 (법학71-75)
△홍성운 (서양사학73-78)
△홍윤철 (의학79-85)
△황성균 (의학71졸)

△황창규 (전기공학72-76)
◆20만원
△김영규 (공업화학76-80)
△김응성 (공업교육71-78)
△김준평 (농화학48-53)
△노웅래 (항공공학85-89)
△박관호 (자원공학83-87)
△박지영 (인류학84-88)
△손계욱 (금속공학70-74)
△안정환 (원예학79-86)
△정갑주 (법학73-77)
△조병제 (의학70-76)
△황용균 (정치학72-76)
△황종현 (SGS 17기)
◆17만원
△정재관 (화학공학57-61)
◆15만원
△강시규 (전기공학83-87)
◆13만원
△김순영 (ACPMP 3기)
◆11만원
△정승용 (의학83-89)
◆10만원
△강민균 (경영학90-94)
△강상규 (토목공학91-95)
△강웅구 (농경제사99-05)
△강인권 (공업교육76졸)
△강진모 (전기공학03-07)
△고창현 (사법학84-88)
△구능완 (축산학56-60)
△구본민 (법학77-81)
△구영주 (생물교육72-76)
△구자남 (전기공학82-88)
△구자원 (의학85-91)
△구자일 (경영학93-95)
△권기욱 (독어독문82-86)
△권두섭 (섬유공학57-61)
△권문한 (영어교육74-78)
△권선용 (법학73-77)
△권영택 (AMPP 8기)
△권정현 (경영학00-05)

△김우정 (전산과학92-96)
△김 웅 (HPM 6기)
△김관형 (토목공학79-83)
△김관흥 (조선공학75-79)
△김광일 (기계설계81-85)
△김광준 (영어교육78-82)
△김광태 (철학71-75)
△김광현 (독어독문76-82)
△김규갑 (토목공학57-61)
△김규호 (전자계산80-84)
△김기만 (AMP 63기)
△김기식 (ALP 5기)
△김기영 (컴퓨터공99-04)
△김기환 (의학83-89)
△김덕용 (동양화81-88)
△김도선 (전기공학72-76)
△김동규 (의학72-78)
△김동오 (HPM 18기)
△김동철 (기계항공00-07)
△김명진 (법학74-78)
△김미애 (간호학82졸)
△김법환 (치의학81-85)
△김병수 (수학74-78)
△김병용 (AMPFRI 14기)
△김상수 (물리학76-83)
△김상윤 (의학79-85)
△김상은 (국악02-06)
△김선호 (경영학81-87)
△김성동 (컴퓨터공87-91)
△김성수 (법학96-01)
△김성호 (토목공학78-82)
△김세정 (체육교육70-74)
△김수환 (경영학82-86)
△김순영 (건축학95-99)
△김신섭 (대학원84-86)
△김신정 (간호학73-77)
△김영균 (치의학80-86)
△김영도 (토목공학90-95)
△김영란 (법학75-79)
△김영삼 (지리교육73-77)
△김영수 (국어교육70-74)

△김영욱 (법학72-76)
△김영재 (종교학54-61)
△김영훈 (전기공학99-07)
△김완배 (농경제학71-75)
△김용길 (금속공학76-80)
△김용대 (법학79-83)
△김용덕 (법학76-80)
△김용상 (사법학82-86)
△김용수 (치의학89-93)
△김용태 (AIP 30기)
△김우진 (사법학83-87)
△김육환 (AMP 62기)
△김원봉 (농화학88-97)
△김유동 (사법학86-90)
△김은상 (경영학74-78)
△김은식 (물리학83-87)
△김의창 (영어영문00-06)
△김일권 (행정학64-68)
△김재영 (HPM 18기)
△김정렬 (식품공학85-89)
△김정용 (불어교육78-82)
△김정은 (기악91-95)
△김종성 (경제학81-88)
△김종숙 (간호학79-83)
△김종언 (농업기계91-98)
△김종훈 (사법학83-87)
△김준호 (대학원86-88)
△김준호 (섬유공학75-79)
△김진우 (토목공학71-75)
△김찬규 (신문학76-83)
△김채범 (ACPMP 3기)
△김태겸 (경영학70-74)
△김태범 (의학91-97)
△김태식 (무역학78-82)
△김태영 (농공학82-86)
△김태희 (인류학99-05)
△김현미 (불어교육82-86)
△김현수 (경제학87-91)
△김형성 (법학79-83)
△김형중 (기계공학81-85)
△김혜령 (화학생물02-07)
△김홍균 (전기공학81-85)
△김홍섭 (경영학79-83)
△나경수 (기계항공95-99)
△나기용 (GLP 10기)
△남기춘 (법학79-83)
△남수현 (경영학87-91)
△남승수 (무역학79-83)
△남지운 (기악82-86)

△남지현 (기약85-89)
△노상호 (수리학88-92)
△류귀식 (AMPP 7기)
△류인수 (산업공학88-95)
△류희철 (의학81-88)
△명나혜 (의학82-88)
△모윤종 (산업공학72-77)
△문대경 (컴퓨터공97-05)
△문호생 (의학83-89)
△민수홍 (조경학74-82)
△민승기 (경영학74-79)
△민주석 (농학80-88)
△박 철 (국제경제81-87)
△박광일 (토목공학80-87)
△박기준 (경영학85-89)
△박상순 (곤충학86-93)
△박상욱 (체육교육02-06)
△박성원 (치의학86-90)
△박성은 (작곡97-01)
△박성진 (사법학84-89)
△박성진 (성악02-06)
△박세화 (전기공학84-88)
△박수찬 (물리학92-96)
△박승환 (대학원96-98)
△박연우 (간호학77-81)
△박연형 (임산공학82-90)
△박영식 (사법학84-88)
△박요찬 (사법학81-85)
△박용범 (의학82-88)
△박육영 (GLP 14기)
△박원규 (경영학98-05)
△박윤경 (수학83-87)
△박인규 (ABP 10기)
△박인에 (의학75-81)
△박종천 (종교학91-97)
△박창언 (농공학80-84)
△박효욱 (농경제학90-94)
△배건웅 (기계공학73-78)
△배상만 (심리학84-89)
△배재광 (공법학84-89)
△백문석 (자원공학85-89)
△백운재 (법학78-82)
△백인혁 (ALP 5기)
△백준기 (제어계측80-84)
△변창명 (동물학56-60)
△시영준 (산업공학99-06)
△서 혁 (국어교육82-89)
△서동철 (조선해양95-99)
△서배수 (국제경제84-91)

△서보선 (경제학91-98)
△서상오 (조선공학77-81)
△서우영 (수리학01-05)
△서정태 (동물학55-61)
△서정호 (의학83-89)
△서황목 (인류학91-98)
△서희석 (법학71-75)
△설권석 (농학54-58)
△설영아 (성악75-79)
△성낙진 (광신학60졸)
△성지용 (사법학82-86)
△손미원 (제약학80-84)
△손수일 (법학74-78)
△손영제 (의학89-95)
△손영준 (국제경제89-93)
△손우창 (공법학94-00)
△손호현 (치의학70-76)
△송길대 (공법학91-95)
△송병록 (기계설계78-83)
△송석봉 (사법학87-94)
△송세민 (공법학81-85)
△송영철 (법학80-84)
△송원중 (AMP 63기)
△송인상 (재료공학00-07)
△송인정 (기약95-99)
△송재환 (물리교육55-60)
△송태호 (사회학65-72)
△송혜정 (정치학93-97)
△신동승 (법학79-83)
△신동준 (섬유공학78-83)
△신상민 (불어교육75-79)
△신수길 (법학77-81)
△신승호 (경제학98-03)
△신은유 (HPM 2기)
△신재하 (사회학53-60)
△신정은 (의학91-97)
△신준상 (경제학75-79)
△신혜주 (기약76-80)
△신희백 (AMPP 5기)
△심성은 (의학91-97)
△심우갑 (건축학64-68)
△안강모 (의학83-89)
△안남규 (법학50-60)
△안승국 (법학76-80)
△안영일 (무역학80-84)
△안혜경 (대학원00-03)
△안혜준 (의류학77-81)
△안호식 (산림과학00-07)
△양문섭 (치의학78-84)

△양병기 (ABP 30기)
△양정모 (경영학72-76)
△엄상현 (물리교육75-79)
△엄승호 (기계공학78-82)
△엄원근 (기상학77-81)
△엄시창 (교육학83-91)
△엄정덕 (전기공학81-87)
△오광호 (서양사학73-77)
△오기세 (지리교육74-80)
△오덕영 (AMPP 8기)
△오문석 (무역학81-85)
△오문숙 (작곡84-88)
△오민철 (경영학83-90)
△오병철 (기계공학76-80)
△오성진 (농화학90-96)
△오세훈 (정치학90-94)
△오원용 (농공학73-80)
△오재훈 (항공우주86-91)
△온승엽 (전기공학80-84)
△우미애 (외교학01-05)
△원인희 (농공학73-78)
△유석형 (농공학58-64)
△유영상 (공법학81-86)
△유우평 (HPM 13기)
△유정현 (의학90-96)
△유준하 (기계항공95-99)
△유환욱 (물리교육78-82)
△윤병우 (의학74-80)
△윤신승 (사법학88-93)
△윤원만 (법학79-83)
△윤재호 (GLP 14기)
△윤정일 (지질학70-74)
△윤준기 (의학91-97)
△은창용 (법학76-80)
△이강영 (AIC 20기)
△이경숙 (간호학82-86)
△이경희 (독어독문81-85)
△이계현 (체육교육72-76)
△이규남 (응용미술82-86)
△이근용 (신문학76-80)
△이금령 (응용미술76-80)
△이덕록 (농업교육72-79)
△이덕모 (법학71-75)
△이덕열 (조선공학75-81)
△이동건 (경영학82-87)
△이동욱 (조선공학82-86)
△이명도 (치의학76-82)
△이문주 (서양화91-95)
△이미영 (식품영양83-87)

△이방숙 (기약61-65)
△이범종 (화학교육78-82)
△이병하 (농경제학55-60)
△이병화 (치의학80-88)
△이상건 (법학77-82)
△이상룡 (정치학92-96)
△이상욱 (수학83-95)
△이상철 (건축학77-81)
△이석우 (농공학59-63)
△이선영 (기약86-90)
△이선이 (기약84-88)
△이성재 (수학교육85-89)
△이수영 (법학74-78)
△이송덕 (의학81-87)
△이시영 (의학80-86)
△이연주 (건축학93-97)
△이용관 (법학99-05)
△이원범 (재료공학94-01)
△이원섭 (의학85-91)
△이장수 (건축학85-94)
△이장희 (기계공학78-82)
△이재욱 (경영학88-94)
△이재인 (AMP 62기)
△이정식 (법학78-82)
△이정우 (GLP 13기)
△이정원 (경영학84-91)
△이정자 (가정관리77-81)
△이정호 (농화학71-76)
△이정호 (독어교육96-04)
△이종선 (심리학87-93)
△이종원 (지리학81-88)
△이종주 (사법학85-89)
△이종철 (AMP 56기)
△이종철 (GLP 14기)
△이주현 (경제학91-98)
△이진희 (식품공학81-85)
△이찬서 (수학82-87)
△이찬진 (사법학83-87)
△이태순 (건축학79-83)
△이태승 (제약학77-81)
△이태주 (섬유공학82-87)
△이한중 (독어독문74-78)
△이한형 (물리학73-80)
△이해준 (경영학73-77)
△이해준 (치의학77-83)
△이형진 (사법학81-85)
△이혜영 (간호학92-96)
△이혜정 (성악81-85)
△이호성 (경영학70-74)

△이홍자 (국어교육70-74)
△이환규 (행정학55-60)
△이희원 (AIP 25기)
△임경보 (SGS 11기)
△임미화 (국어국문83-89)
△임장현 (ALP 2기)
△임찬희 (수학교육78-82)
△임형백 (농촌사회89-93)
△장보훈 (경영학83-87)
△장석주 (전기공학82-86)
△장윤선 (기계항공02-07)
△전복규 (상학56-60)
△전석원 (자원공학83-87)
△전수안 (법학71-75)
△전용호 (계산통계75-79)
△전윤식 (응용화학71-75)
△전주현 (심리학90-94)
△전지영 (농가정학83-87)
△전호석 (기계설계79졸)
△정경배 (영어교육58-62)
△정교관 (경제학57-61)
△정규숙 (간호학84-88)
△정기언 (사회교육72-76)
△정문성 (의학78-84)
△정비환 (제약학81-85)
△정삼봉 (사회학73-78)
△정상윤 (생물교육74-78)
△정성훈 (정치학99-07)
△정연수 (법학80-84)
△정영기 (건축학76-80)
△정영화 (의학75-81)
△정원배 (ACPMP 3기)
△정윤호 (치의학86-90)
△정재면 (의학83-89)
△정정호 (AIP 34기)
△정지인 (기약97-01)
△정진경 (사법학81-85)
△정태영 (조선공학75졸)
△정태욱 (치의학90-95)
△정현대 (국어교육81-90)
△정형근 (화학공학71-75)
△정훈용 (의학82-88)
△조대환 (법학76-80)
△조성원 (사회학88-93)
△조성진 (경제학55-61)
△조성파 (토목공학82-86)
△조성훈 (디자인학97-04)
△조영준 (사법학83-87)
△조용훈 (건축학78-82)

△조은정 (제약학00-04)
△조준래 (AMPFRI 12기)
△주석영 (법학79-83)
△주승중 (임산공학84-91)
△주영수 (의학84-90)
△지난식 (ACAD 51기)
△지동소 (사회교육55-60)
△지청산 (경제학82-87)
△진기열 (치의학77-83)
△진은석 (조선해양91-96)
△차승원 (경영학90-97)
△채흥기 (지질학71-75)
△최관식 (수학57-61)
△최규선 (기약71-75)
△최규호 (항공우주89-94)
△최근환 (AIP 29기)
△최애경 (회화56-60)
△최원석 (의학00-06)
△최희희 (자원공학93-97)
△최주현 (경영학75-79)
△최준민 (항공공학77-81)
△최진식 (AMP 53기)
△최진용 (생명과학00-04)
△최치원 (보대원97-99)
△괴영현 (공법학89-94)
△하서용 (금속공학87-91)
△하헌석 (치의학93-97)
△하현준 (화학교육78-82)
△한성희 (치의학81-85)
△한진성 (응용미술77-83)
△한현숙 (약학79-83)
△허 현 (AIP 21기)
△허영호 (ALP 4기)
△현근태 (농촌사회90-94)
△홍성욱 (GLP 3기)
△홍성출 (의학89-95)
△홍성철 (AIP 34기)
△홍순태 (상학56-60)
△홍영기 (ALP 6기)
△홍지영 (작곡83-87)
△황대용 (의학78-84)
△황성호 (기계설계84-88)
△황윤식 (조선해양90-94)
△황응준 (성악87-91)
△황정욱 (경제학85-89)
△황태인 (전자공학71-75)

〈이상 2007년 12월 19일
부터 12월 27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07년 11·12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07.11.15.~12.27.) · 일반 (07.11.15.~12.28.)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金貞植 = 1백만원
△부회장 裴命仁 = 1백만원
△부회장 全東龍 = 1백만원
△부회장 李世中 = 50만원
△부회장 李相赫 = 1백만원
△부회장 李相周 = 50만원
△부회장 鄭潤煥 = 1백만원
△부회장 安秉勳 = 1백만원
△부회장 劉常夫 = 1백만원
△부회장 辛鉉雄 = 50만원

관 악 회

△이 사 鄭哲圭 = 30만원
△이 사 申明珪 = 30만원
△이 사 鄭啓泳 = 30만원
△이 사 張慶作 = 30만원

상임이사

△李倫京간호대동창회장 = 20만원
△韓仁圭농생대동창회장 = 20만원
△鄭興淑생활대동창회장 = 40만원
△金英大경대원동창회장 = 20만원
△金基炳행대원동창회장 = 40만원
△李東俊ACAD동창회장 = 20만원
△姜普英HPM동창회장 = 20만원
△南正明AMPP동창회장 = 20만원
△高光平관악무역인회장 =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고석윤 문리46
△공영운 약대60 △김봉완 공대46
△김일현 자연76 △김탁곤 경영68
△박인균 공대48 △박일재 법대52
△박재일 문리60 △서순철 약대60
△손명기 공대72 △송영욱 의대74
△신철순 사대57 △심재철 사대77
△양재섭 문리67 △오인혜 사대75
△유숙자 간호59 △윤병권 공대57
△이 용 문리62 △이근무 문리56
△이옥경 문리69 △이호열 사회75
△정교성 공대65 △정화자 음대60
△최충남 사대62 △한풍렬 미대66

〈일반〉 △강동선 공대96
△강상완 경영91 △강승모 사회81
△강효석 사회72 △계창호 문리54
△공용표 行院79 △권정운 AMP31
△권충택 농대58 △권태완 문리59
△김 광 상대62 △김 농 공대69
△김기영 行院82 △김덕표 AIP36
△김동한 大院92 △김두경 공대70
△김명호 미대55 △김문정 음대89
△김범수 경영86 △김상두 사대94
△김상완 의대90 △김선원 공대75
△김세원 공대89 △김수남 공대54

△김연식 공대47 △김영철 공대61
△김용석 공대55 △김용재 ACAD63
△김웅한 의대81 △김유진 치대77
△김윤환 의대96 △김익홍 공대67
△김인숙 사대56 △김일성 약대60
△김재웅 사대76 △김재임 미대56
△김재환 공대89 △김정민 간호83
△김정자 HPM20 △김종해 ACAD64
△김준말 사대55 △김지연 인문96
△김진두 경영76 △김철진 사대71
△김준영 공대58 △김태영 HPM20
△김태형 공대83 △김태호 AIP26
△김택중 공대83 △김학준 공대71
△김현승 AMFR7 △김현중 음대58
△김형찬 자연85 △김혜전 環院78
△김호경 문리58 △김효재 법대98
△남요상 농대83 △류용구 大院00
△모성원 경영97 △문길구 공대64
△문화화 문리56 △민중기 법대77
△박광대 공대80 △박남훈 공대95
△박서환 사대79 △박성기 상대57
△박성혁 공대94 △박소현 의대79
△박승정 상대46 △박영득 大院82
△박용재 공대97 △박윤희 법대84
△박은선 간호54 △박재현 사회97
△박정민 大院81 △박정삼 법대97
△박준석 법대89 △박태호 공대86
△박현찬 인문82 △배건성 공대73
△배남경 미대91 △배창준 농생95
△서민원 大院85 △서석천 공대57
△서철원 문리61 △서학령 AMPP7
△선용빈 공대72 △손세정 약대98
△손행종 의대86 △송동의 공대74
△송승호 공대86 △송용호 공대70
△신동호 문리53 △신상용 공대90
△신정철 공대95 △신창수 공대81
△신춘식 공대57 △안영규 법대82
△양경석 법대70 △여운걸 의대96
△오명석 법대84 △오웅진 AIP36
△오창환 수의68 △왕세균 사대64
△우문정 공대57 △우제걸 공대59
△원수언 AMP30 △원희광 생활79
△원희수 농대52 △유동표 HPM20
△유성재 법대56 △유용하 공대60
△유인섭 공대70 △유재원 법대98
△유재준 자연88 △윤경모 공대65
△윤병세 법대72 △윤선희 사대98
△윤성혁 공대99 △윤세원 문리47
△윤용석 법대74 △윤정제 사회98
△윤충섭 농대55 △이 해 공대52
△이강재 인문83 △이규대 AIP36
△이상호 공대92 △이순명 공대00
△이승재 자연02 △이영경 공대86
△이영화 미대87 △이윤정 간호90
△이은경 법대99 △이은혜 자연87
△이재구 인문84 △이재국 상대59
△이재기 법대70 △이재운 사회75
△이재인 사대82 △이재혁 의대96
△이종우 치대99 △이창우 수의63
△이태규 자연78 △이혜승 의대93
△이홍금 자연73 △이화진 상대59
△이희주 생활56 △인만진 농대81

△임미향 의대97 △임헌식 농생01
△장병주 공대53 △장상진 자연99
△장석열 공대85 △장세균 농대70
△장정애 인문82 △장철순 AMPP7
△전상기 법대75 △전석재 사대81
△전종익 법대90 △정규수 AIP36
△정병욱 사회78 △정설주 음대80
△정수인 음대98 △정연택 공대55
△정정자 사대56 △정조화 AMP62
△정현주 치대75 △조성준 법대98
△조영태 농대58 △조치룡 공대77
△차지훈 의대98 △채명목 법대47
△최경락 AMPP8 △최병일 공대79
△최선동 미대52 △최윤희 공대82
△최태진 자연99 △한 현 의대79
△한만용 농대68 △한수인 사대53
△한재봉 상대58 △한효동 수의67
△허경희 치대94 △허남준 공대94
△허병출 사대42 △현규택 공대83
△현정택 상대67 △홍선기 농대84

이 사

◆인문대 △강현구79 △김병욱79
◆사회대 △김기령75 △박찬욱72
△임병재74 △홍재욱69
◆자연대 △김철구74 △김태공79
△오종훈77 △이 건73 △현동우72
◆간호대 △김장연79 △이홍자76
△태영숙71
◆경영대 △권기출72 △김준호81
△박종완71 △유병인69 △이동기76
△이인환79
◆공대 △강광웅71 △계명식53
△구명희72 △김도심52 △김병하71
△김서주75 △김성도75 △김영남61
△김원식68 △김재익69 △김정태76
△김호수63 △김희중72 △나재심76
△남궁은69 △부장렬77 △서선덕75
△송배원75 △신홍식74 △안복신76
△안홍섭75 △염유신79 △오신남60
△오창석52 △이건우74 △이동권71
△이상률80 △이순병68 △이원세71
△이원형70 △이재형71 △이종훈53
△이준의58 △이철원62 △이종덕69
△이혁재66 △이홍원66 △이희영76
△임근희74 △전희상70 △정병일50
△정을호68 △정형수59 △조규남72
△최덕규62 △최동욱78 △최우방63
△한도석78 △홍 경67 △홍대형65
△홍성목54 △황선근66
◆농대 △곽지상52 △구자웅68
△권대욱69 △김규석63 △김상호56
△김석구59 △김일봉68 △김희성61
△민병렬63 △박순직63 △서병륜69
△서정근59 △심용섭70 △윤여창53
△이규재50 △이대진65 △이원덕80
△이종석64 △임열재64 △정용문67
△정창현57 △최승호83
◆문리대 △강승렬62 △권민웅62
△김 승61 △김우철67 △김정환61
△문희수60 △박기안65 △박혜란65

△양동철58 △오종발68 △유형균68
△이경형66 △이문규61 △이민웅61
△이상원71 △이영훈64 △임형택62
△정만조65 △주영길67 △주진우70
△채치범59 △황정식52 △황희태60
◆미대 △김영대67 △박성진83
△이순종70 △정경석85 △차명희64
△최미경78
◆법대 △강병섭68 △강일원78
△경우근67 △권일웅62 △김대영71
△김문희55 △김부찬74 △김상기63
△김영선81 △김영수65 △박기태76
△박종성73 △박준서59 △성낙인69
△안종윤51 △윤재기63 △이성로64
△이순배58 △이영기71 △이영주58
△이정환71 △임태수56 △정기용77
△정호영66 △최준현59 △황의만70
◆사대 △김광수72 △김수신60
△남상인73 △박장욱78 △손영목60
△신차균68 △안창섭61 △어명하59
△윤기욱68 △이원강57 △이찬교55
△이형준70 △이혜성58 △이호준60
△임학수69 △장 호66 △조광순74
△조용복55 △조인형60
◆상대 △권대인46 △권희택56
△김진기67 △김창수68 △박지중66
△송병락59 △송진호51 △송필호68
△심재엽63 △윤종현44 △이종훈67
△정재택58 △채경석61
◆수의대 △김학범75 △방극승64
△이각모64 △임영철74 △장전석53
△정대연54 △조영웅63 △지차호70
△하태은80
◆약대 △김도춘55 △김영광72
△박호걸73 △반성호65 △서한익61
△오연준56 △유용근54 △유충규70
△윤효선53 △이강현75 △이길웅65
△전창수74 △정연섭54 △홍정근53
◆음대 △길일섭80 △이신화61
◆의대 △김병주56 △김성진77
△김운식69 △맹국영68 △안제환66
△이광우76 △이준근68 △정종환56
△조한익61 △주근원43 △최완주73
△한만희59 △홍재웅60
◆치대 △김상철73 △박종만60
△이재성58 △임채균53 △전현희86
△홍경택64 △황 준63
◆대학원 △김윤성82 △김흥렬81
△안영섭74 △임병빈82 △지충수71
△한희석86
◆보대원 △황석천80
◆신대원 △김기도72
◆행대원 △곽대훈78 △김종길73
△남상우73 △문희갑66 △반금환70
△조한유78 △최봉기77
◆환대원 △김형복86
◆AMP △강말길35 △엄복섭35
△이태교4
◆AIP △김복근16 △김서곤11
△서영식15 △이호재21 △전재홍17
△함돈식18
◆ACAD △강희간44 △박용호48

△배윤도54 △원광호36 △이종간55
◆ABP △김원태5 △조규환20
◆SGS △김성수2 △이용일3
◆HPM △김장현4 △선덕남4
△이순임1 △장성호6
◆AMPP △이신복1
◆AIC △김일수12 △김택곤13
△이재희9 △이정재2 △최명선3
◆AFB △강복순2 △이상일2
△이현주3
◆AMPFRI △박병남4
◆GLP △남궁훈3

일 반

◆인문대 △김미정87 △강현주93
△김도훈80 △김성수77 △김영인83
△김영호74 △김재영82 △김진석77
△류규현91 △박대식80 △박용예84
△박진우93 △박희일91 △석제범81
△안병수79 △안상욱92 △윤동훈88
△윤재전89 △음수진82 △이경완89
△이동익98 △이승호98 △이은영87
△임채희84 △전지혜04 △정동주00
△정준모89 △조대호87 △조승미03
△최광웅82 △최윤호85 △하성식84
△황진상98
◆사회대 △고평석91 △고형권83
△곽세현80 △권혁규84 △김남기77
△김동율92 △김민관97 △김봉준00
△김상욱98 △김안나02 △김영욱00
△김영진86 △김영진99 △김용호75
△김정현90 △김준상84 △김태균00
△김환영81 △김희철97 △노범석86
△박영희82 △배성범98 △백두현82
△백창훈84 △서봉경80 △서정일92
△송명달84 △송웅달89 △인병학93
△안혜경00 △오승준02 △오유진00
△이길호85 △이상웅98 △이선아97
△이수미92 △이연호81 △이영학82
△이윤희00 △이종범74 △이혁진93
△임일섭86 △장경영92 △장흥근81
△정간채87 △정윤재94 △조덕현99
△조동기83 △주명훈90 △진정균99
△최상규80 △최영삼83 △최진광00
△최학철85 △한정운00 △홍민영96
△황의현79
◆자연대 △강문기68 △강성구82
△강영철78 △강일남92 △강치중86
△강태인03 △김광일79 △김도현72
△김성환00 △김영우80 △김용휘00
△김정구91 △김지환96 △김진석76
△김태일96 △김태훈94 △문소영95
△박 인03 △박인숙96 △박정환83
△박찬연01 △배창환01 △서준혁04
△손민주03 △송인석80 △신정수74
△원성준97 △이길주99 △이병주83
△이상욱83 △이성중87 △이성호93
△이세훈91 △이승용84 △이승재02
△이유문80 △이인덕98 △이태연79
△임경재00 △전용호75 △정민선04
△정용준01 △조영단00 △채병훈86
△최영호86 △허원기87 △홍성금83
△홍한표98 △황복선00 △황치욱84
◆간호대 △고혜명65 △김미희95
△박미정75 △윤화중75 △이상미74
△이선주81 △이용아52 △이은경85
△이효원86 △천선희03 △최은욱78
△현희수53
◆경영대 △구창모00 △김건수94
△김대진74 △김영삼87 △김영욱97

△김용술⁸⁷ △김재호⁹³ △김종필⁹⁹
△김주연⁰³ △김진섭⁸⁵ △김해현⁰²
△김형주⁹⁶ △문성태⁰¹ △박개성⁸⁵
△박봉호⁰⁴ △박연화⁰² △방세영⁹⁹
△배성은⁸⁷ △백복현⁸⁷ △서진식⁸⁸
△손영진⁰¹ △손영진⁸¹ △송우현⁹⁹
△송창영⁹⁰ △신희동⁸⁷ △이동호⁹⁷
△이명길⁸⁹ △이준구⁹¹ △이현철⁸³
△장성욱⁹⁸ △전기환⁸³ △전용주⁸⁶
△정원식⁰⁵ △정인철⁸² △정종회⁰⁰
△정한인⁹⁹ △조재복⁸⁰ △주상신⁹⁸
△진성두⁹⁹ △최석규⁸² △최신석⁹⁸
△최종명⁸⁶ △홍두기⁰⁰
◆공대 △강근택⁷² △강종렬⁸³
△강대선⁸⁰ △경계현⁸² △고성훈⁸⁵
△곽병근⁶¹ △곽병현⁶⁷ △구현모⁷²
△권봉수⁶² △권영환⁷² △권오규⁰³
△권오대⁶⁵ △권혁선⁷² △김광수⁹²
△김광식⁹⁵ △김광열⁷⁹ △김광택⁵⁹
△김기수⁹⁵ △김기영⁹⁹ △김기현⁸⁵
△김동수⁶⁸ △김동진⁸³ △김모세⁹⁰
△김민정⁹⁹ △김병만⁸³ △김시량⁸²
△김상태⁵⁶ △김승현⁸⁸ △김영정⁸¹
△김영철⁵³ △김용혁⁷⁵ △김응천⁹⁴
△김이환⁷⁶ △김인영⁷² △김인원⁷⁵
△김인호⁴⁷ △김정기⁶⁴ △김정순⁷⁵
△김정웅⁶⁰ △김정원⁶³ △김정일⁸⁷
△김종학⁷⁴ △김주철⁸³ △김주하⁰¹
△김준호⁰² △김진경⁶⁴ △김천근⁹⁶
△김태혁⁹⁹ △김학성⁸⁵ △김한석⁷⁷
△김형택⁹² △김효대⁷⁶ △김휘중⁶⁴
△김흥기⁶⁵ △김희경⁰³ △남상원⁷⁷
△남시도⁵⁷ △남웅식⁹⁹ △노경태⁸²
△노승우⁰¹ △류옥현⁸⁷ △문영덕⁸³
△박광연⁰³ △박명하⁶² △박문수⁰⁰
△박상서⁸³ △박수관⁸⁴ △박영호⁹⁴
△박원창⁷⁰ △박인섭⁷⁰ △박종로⁰¹
△박주하⁸¹ △박준성⁰³ △박준호⁰¹
△박한희⁵⁶ △박현렬⁶⁷ △박희수⁷³
△배오섭⁷² △변세종⁹³ △변정근⁵²
△서두석⁷⁷ △서인원⁵² △서준원⁹⁶
△석성봉⁵⁵ △성한표⁶¹ △손명호⁸¹
△송용호⁷⁰ △송인상⁰⁰ △송재혁⁸⁷
△송준환⁶² △송휘준⁹⁷ △신경식⁴⁹
△신우섭⁸¹ △신춘식⁵⁷ △심민규⁰⁰
△심재근⁰⁵ △심재덕⁶⁵ △안병의⁸²
△안용모⁷³ △안형근⁰⁵ △양동기⁸¹
△양승무⁶⁶ △양종화⁷⁰ △어길수⁷⁸
△연상호⁸³ △연영소⁶² △염희택⁴⁶
△오경균⁰¹ △오동규⁶⁶ △오선래⁸⁰
△오성근⁵⁸ △오태균⁸¹ △원동수⁹⁶
△유종오⁹⁴ △유현준⁰¹ △유희봉⁶⁶
△윤석일⁹⁷ △윤성혁⁹⁹ △윤승희⁷⁵
△윤영찬⁶⁷ △윤종구⁷⁸ △이진⁸¹
△이강구⁶⁵ △이경대⁵³ △이균철⁶⁸
△이근수⁵⁵ △이근호⁶⁷ △이도현⁹⁶
△이동국⁶⁷ △이두환⁹⁷ △이만수⁶⁶
△이문화⁷² △이병식⁷⁷ △이보람⁰¹
△이상현⁸⁵ △이선행⁵⁷ △이세준⁸⁴
△이승호⁸⁶ △이양성⁴⁸ △이영학⁴⁸
△이완기⁵⁵ △이용권⁷⁸ △이용운⁹⁶
△이우연⁵⁷ △이우주⁹⁹ △이우현⁵²
△이원보⁹⁹ △이재욱⁹⁷ △이정성⁵⁵
△이종규⁵⁷ △이종훈⁸⁸ △이종근⁶³
△이창한⁷⁴ △이창환⁸⁰ △이태우⁰²
△이학수⁰³ △이호석⁰¹ △이환희⁹⁹
△이효순⁹⁰ △이효형⁶⁴ △이훈기⁸⁶
△임진벽⁵³ △임채용⁸⁹ △임현용⁶⁹
△장덕수⁶⁶ △장민석⁹² △장세현⁴¹
△장현봉⁷⁶ △전구현⁵⁴ △전문석⁸²
△전석원⁸³ △전재수⁸¹ △정기봉⁵⁵

△정만상⁷⁸ △정면수⁵⁹ △정무현⁶⁹
△정상원⁹¹ △정신고⁸² △정영훈⁰¹
△정우만⁹⁷ △정윤철⁷² △정재길⁶⁰
△정지원⁹⁹ △정대중⁴⁸ △정학영⁷⁸
△조명제⁷² △조용섭⁷⁵ △조한구⁶⁹
△조현우⁰⁰ △조형준⁰⁰ △주은심⁸¹
△주재호⁵⁸ △진성태⁸⁶ △차형준⁸⁶
△최금영⁶⁴ △최동혁⁰⁵ △최병삼⁶⁸
△최병호⁷⁰ △최예진⁹⁵ △최용환⁸⁷
△최종선⁷⁷ △최종섭⁷⁷ △최창우⁹⁶
△최충호⁰³ △추정호⁷⁸ △하경진⁷⁴
△하규성⁷⁶ △하민기⁰³ △하상원⁸⁵
△하태흙⁷⁵ △하흥용⁸⁰ △한남혁⁷²
△한민호⁰⁰ △한영수⁶⁵ △한정훈⁸⁵
△한희서⁶¹ △홍성빈⁰⁰ △홍종우⁵³
△황수언⁸¹ △황윤일⁸³ △황재영⁸¹
△황호남⁶⁷
◆농대 △강경주⁰⁵ △강대룡⁹³
△고재현⁷⁷ △고재환⁸¹ △공재환⁶⁸
△김광호⁸⁸ △김동민⁸⁹ △김명주⁸⁴
△김승로⁰¹ △김영식⁶⁶ △김윤조⁸⁹
△김이기⁸⁰ △김인철⁰¹ △김재웅⁶³
△김종은⁸² △김주태⁵⁴ △김중경⁵⁴
△김진우⁸⁰ △김찬조⁴⁹ △김한호⁷⁹
△노재후⁶⁰ △류주영⁹⁶ △박영기⁶⁸
△박재영⁶³ △박주원⁷² △박태식⁶⁸
△박형욱⁹⁶ △배정웅⁶⁴ △백영석⁸⁰
△백용승⁸⁶ △서범수⁸² △서정민⁸³
△성제중⁹⁸ △성현경⁸⁰ △손광훈⁶²
△송성권⁹⁷ △송용섭⁸⁰ △송재철⁸⁸
△송재호⁹⁶ △송지현⁶⁸ △안호식⁰⁰
△염태영⁸⁰ △오원덕⁸⁷ △유남렬⁵⁰
△유동휘⁷⁴ △윤범석⁹⁸ △윤병선⁷⁸
△이경희⁵⁵ △이근자⁶³ △이기영⁹⁵
△이선기⁹⁰ △이승진⁹⁷ △이장환⁵⁸
△이재환⁸¹ △이중훈⁴⁸ △이창현⁷⁹
△이철현⁹² △임도연⁸⁸ △장세영⁵⁷
△정건성⁶³ △정관출⁸¹ △정도웅⁶⁹
△정주영⁸⁷ △정해각⁵⁵ △조선후⁵⁴
△조정남⁰¹ △주승훈⁹⁶ △주영로⁸⁵
△최호⁰² △최경락⁹¹ △최성환⁶²
△최성훈⁸⁸ △최용진⁸³ △최유지⁹⁷
△최희홍⁷⁴ △한성식⁵⁸ △한정식⁷¹
△홍성민⁸⁵ △홍성학⁸⁹ △홍인선⁵²
◆문리대 △강길운⁴⁸ △강세원⁵⁶
△김욱⁶⁹ △김남진⁵⁹ △김상철⁶²
△김영석⁶⁶ △김의종⁶⁴ △김재환⁶⁴
△김흥수⁷⁰ △남성우⁵⁹ △노계원⁵⁸
△박옥순⁵⁹ △박윤배⁷⁰ △배인준⁷⁰
△서건일⁵⁸ △신중성⁷⁰ △여정동⁵¹
△원윤수⁵⁴ △유광준⁷⁰ △유연수⁵⁷
△윤명구⁶¹ △윤홍로⁶⁰ △윤홍로⁶²
△이재용⁶¹ △이정순⁶³ △이해정⁴⁸
△장종학⁵⁹ △전무배⁵² △전우순⁴⁷
△정용승⁵⁸ △조정호⁶² △최웅⁶⁹
△최인승⁵⁸ △최임순⁴⁹ △최종경⁶⁴
△최희수⁶⁷ △한남규⁶⁴ △황명숙⁵²
◆미대 △강재희⁸⁴ △고지영⁹¹
△공기평⁸⁸ △공상구⁹⁷ △권경연⁷⁰
△길호관⁷⁴ △김보아⁰² △김성창⁸⁰
△김지명⁶⁹ △김진영⁸⁵ △김학두⁵¹
△안선영⁰³ △은이영⁷⁵ △이현정⁸³
△장우진⁹⁸ △조영주⁰²
◆법대 △김지⁰⁰ △김훈⁸²
△김건흥⁷¹ △김범준⁰² △김성수⁹⁶
△김성우⁸⁸ △김신주⁹⁶ △김영선⁵⁵
△김윤일⁸³ △김익면⁷⁷ △김정중⁹¹
△김종오⁷⁴ △김주현⁰¹ △김준혁⁹¹
△김진기⁶⁷ △김진태⁷¹ △김태훈⁶⁸
△김형두⁸⁴ △김효주⁷⁸ △노병수⁸³
△노생만⁸¹ △박경순⁴⁹ △박광배⁸²

△박명순⁸⁷ △박정식⁵¹ △박종우⁶⁶
△박종욱⁶⁰ △박종흡⁶² △박주은⁴⁶
△박진표⁹⁴ △박철우⁶⁴ △박형관⁸⁵
△손필영⁵⁵ △송경숙⁹¹ △송동호⁸²
△송평근⁸⁴ △신연호⁵⁷ △안의환⁹²
△안재식⁵⁷ △안창수⁵² △양승권⁶¹
△오권철⁹² △원운묵⁵⁵ △유상렬⁶⁰
△육창우⁸⁵ △윤남근⁷⁷ △윤상수⁹²
△윤석준⁰² △윤성식⁸⁷ △윤장근⁷³
△이경하⁶⁴ △이근윤⁷⁶ △이석웅⁷⁸
△이수경⁵⁷ △이수모⁶¹ △이연진⁵¹
△이영욱⁸⁶ △이윤구⁹⁹ △이은종⁷⁷
△이종신⁶³ △이종훈⁸¹ △이주성⁷⁶
△이춘식⁵⁶ △이학성⁷⁷ △임창원⁶⁴
△임현석⁰¹ △장영철⁵⁵ △장원관⁷¹
△전성수⁸¹ △전수철⁶³ △정원일⁹⁵
△조영희⁹⁰ △조정만⁵⁶ △주용완⁸⁹
△전용환⁶⁹ △최석⁹⁸ △최건호⁹¹
△최민준⁰⁰ △최영덕⁵⁵ △최한돈⁸⁴
△피영현⁸⁹ △하여철⁷⁵ △하원진⁸¹
△한연수⁹⁵ △한영표⁸⁶ △한준엽⁶⁹
◆사대 △강순규⁷⁶ △강신호⁵⁵
△강주영⁰¹ △고차욱⁹⁰ △구인권⁷⁶
△김경희⁸² △김관섭⁷⁹ △김광진⁴¹
△김남욱⁵⁵ △김동훈⁹⁸ △김명수⁶⁸
△김민관⁹⁵ △김범석⁸⁸ △김병욱⁶⁹
△김부환⁷⁹ △김성근⁷⁴ △김세영⁴⁶
△김영화⁸³ △김정숙⁹⁰ △김중환⁷⁶
△김태훈⁸⁸ △김향진⁹⁴ △김화진⁷⁷
△류벽하⁷⁷ △문정배⁰³ △민영문⁷⁷
△박성준⁸⁹ △박영희⁶⁵ △박일규⁸⁷
△박정화⁷⁸ △배주은⁰² △손나철⁴⁹
△송광섭⁷⁷ △심지나⁹⁷ △안정아⁰²
△안종만⁵³ △양근하⁰⁰ △양철배⁷⁰
△애원혜⁶¹ △오영희⁷⁴ △왕진형⁷²
△유남두⁵⁷ △유영선⁷⁸ △유영선⁸⁶
△윤민중⁶⁷ △윤소영⁹⁵ △윤학진⁵⁹
△이계현⁷² △이덕수⁶¹ △이상규⁵⁶
△이상욱⁵¹ △이석호⁵⁹ △이슬기⁰³
△이영복⁶⁸ △이옥동⁸¹ △이용인⁶²
△이인정⁹¹ △이주영⁰¹ △이태준⁴⁸
△이형국⁸² △이환배⁵⁴ △이흥종⁵⁴
△임문식⁵⁶ △전경하⁸⁷ △정근훈⁴⁹
△정운근⁷⁶ △정원섭⁵⁷ △정인형⁶⁵
△정진대⁷¹ △조영목⁷⁷ △최윤경⁸³
△최은경⁹³ △최재균⁹⁷ △최정림⁶²
△최준홍⁸⁰ △최철수⁷¹ △최화자⁶⁴
△한관희⁷³ △한천목⁷¹ △함종규⁹³
△홍은희⁶¹ △홍태식⁶⁷
◆상대 △강신찬⁶⁹ △강종우⁶²
△구의일⁶¹ △김규식⁵⁴ △김기덕⁶¹
△김기주⁵³ △김승정⁶⁰ △김영빈⁶⁵
△김용일⁶⁸ △남궁성⁶⁴ △노태홍⁵⁵
△박명식⁵⁹ △박병환⁵⁰ △박성기⁵⁷
△박양규⁵⁸ △박좌용⁴⁸ △박창배⁵⁸
△백운생⁶² △서상달⁶² △손경수⁵⁶
△손동호⁵³ △송재관⁶⁶ △신현직⁴⁵
△윤영섭⁶⁶ △이규종⁶⁵ △이기철⁵⁵
△이동재⁵⁴ △이현구⁷¹ △이호철⁵⁷
△임종수⁷⁰ △장사일⁷³ △장지상⁷⁴
△지영식⁵⁷ △최창욱⁶⁸ △최택만⁵⁹
△한정복⁶⁶ △홍성인⁵⁶ △홍일표⁴⁹
◆생활대 △권덕윤⁸⁴ △김복희⁷⁹
△김수미⁸³ △노명려⁷⁷ △문상철⁹⁸
△박순이⁷⁴ △손희준⁷⁷ △이용호⁷⁸
△정현우⁰⁰
◆수의대 △강상구⁸¹ △김찬⁵¹
△김도경⁸⁶ △김원선⁵⁴ △김재원⁵⁹
△김점용⁸⁸ △김종태⁶⁴ △김한태⁷⁸
△박현식⁸⁵ △서상호⁹¹ △서창우⁶³
△손태영⁴⁹ △오남진⁶⁷ △오세웅⁸⁹

△정지상⁷¹ △최민철⁷⁵ △한인식⁶⁴
◆약대 △강선미⁹⁸ △권미정⁹⁴
△권수현⁹⁰ △김민정⁰¹ △김부근⁶⁰
△김원동⁰⁰ △김은영⁸⁹ △김지배⁷⁰
△박정희⁵¹ △변정수⁹⁶ △서동철⁸⁹
△성태현⁷⁰ △양재영⁰² △육지원⁵⁵
△우제남⁶⁹ △우제안⁵⁷ △이갑희⁵³
△이모세⁸⁶ △이성태⁶⁰ △이원일⁹⁵
△이주현⁹⁹ △이훈자⁵⁶ △조남춘⁵⁸
△주춘대⁵⁴ △지창원⁸³ △차성남⁷⁸
△최상호⁶⁷ △최서표⁷¹ △최승호⁷⁶
△함은경⁸²
◆음대 △김현숙⁷⁹ △김형준⁸⁷
△맹형철⁹⁷ △송복자⁸⁴ △양은희⁷¹
△원호선⁷⁴ △이경희⁷⁶ △이상렬⁸⁴
△이용승⁷⁵ △이종훈⁹¹ △이지연⁹³
△이지원⁸⁵ △임경원⁷⁹ △임미수⁷⁵
△임정원⁸³ △장원국⁸⁸ △장희순⁸⁹
△전소영⁸⁰ △전인창⁸⁸ △지광운⁸¹
△지은혜⁸⁷ △한태원⁷³ △홍지혜⁰³
◆의대 △곽시은⁹⁸ △김선민⁹⁸
△김세영⁸⁸ △김영곤⁴⁹ △김원회⁵⁶
△김재원⁹³ △김진하⁴⁷ △노경운⁷⁹
△목정은⁶⁰ △문승규⁹² △문형조⁵⁵
△문홍세⁵⁴ △박종철⁹⁵ △방현숙⁸⁸
△손준홍⁸⁵ △송진석⁹⁴ △신애선⁰¹
△신영태⁷³ △신옥하⁵¹ △양솔몬⁹⁸
△오국환⁸⁸ △유하성⁷² △이란⁸⁷
△이동환⁶⁷ △이봉하⁴⁹ △이석영⁹²
△이세훈⁹² △이승철⁶⁸ △이언복⁵²
△이원기⁵⁶ △이원석⁸³ △이은선⁰⁰
△이재호⁹¹ △이종철⁹³ △이진룡⁷¹
△이해욱⁷⁵ △전태희⁸³ △정성일⁹²
△정용인⁶⁸ △조두영⁵⁵ △조재호⁹⁸
△주일중⁷⁷ △최원일⁰⁵ △하재구⁵⁰
△한규남⁹⁸
◆치대 △김광희⁵² △김원범⁷⁹
△김형주⁹⁵ △김화춘⁵⁹ △문제원⁷⁰
△소병선⁷³ △손대식⁶⁵ △신지연⁹⁰
△신효근⁷⁰ △염인웅⁷⁸ △여인성⁹⁵
△이교인⁶⁵ △이규승⁵⁸ △이종학⁰⁴
△이철용⁷¹ △전민웅⁸⁴ △정관희⁶¹
△조재익⁷¹ △최동광⁶² △한광수⁷²
△허정규⁶²
◆대학원 △곽종구⁸⁸ △권경필⁹⁶
△김봉조⁹⁵ △김상복⁹⁸ △김상열⁸⁶
△김용구⁸⁰ △김우식⁶⁶ △김형원⁸³
△박병근⁹² △장성수⁷⁸ △정도영⁸²
△주혜수⁸⁵
◆경대원 △박정완⁹¹ △송윤화⁹⁴
△조의식⁹⁰ △조혜규⁹¹ △황길태⁶⁶
◆교대원 △김기태⁷¹
◆국대원 △최명례⁰¹
◆보대원 △박선희⁰⁴ △부원정⁰⁵
△서광석⁷⁹ △안인성⁰⁴ △이진경⁷¹
△정상조⁶⁷ △정정근⁸⁷ △조춘국⁸⁴
△한순혁⁸⁹
◆신대원 △황우권⁰⁰
◆행대원 △남기명⁸¹ △남호현⁸²
△안홍⁰⁵ △오혁⁷⁶ △윤건⁰⁵
△이원기⁶⁷ △이재희⁰⁵ △이해재⁶²
△임세환⁷¹ △장익성⁸¹ △지동하⁸⁸
△한호선⁷²
◆환대원 △강재훈⁹⁶ △이정미⁰¹
△이종일⁸³ △임용택⁸⁸ △장경석⁹⁶
◆AMP △강성일⁶² △강신욱⁵⁰
△공덕수⁵⁵ △권영제⁶² △권오형⁶³
△김덕태⁶³ △김동엽⁶ △김병란⁶³
△김상규⁶² △김상환⁶² △김선홍¹⁴
△김필수²⁵ △박근학⁵¹ △박성호⁶³
△박인준³⁸ △박찬경³⁵ △배석범³³

△배신호³⁴ △성조경³⁵ △송완용⁶²
△송원중⁶³ △송준섭⁶³ △송학성⁶³
△신성택³⁸ △심명구¹² △양석승⁶³
△유근환¹⁰ △유병덕⁶² △윤석규⁶²
△윤수복⁶³ △이백순⁶³ △이번우⁵²
△이성연⁴ △이재환⁴⁸ △이정훈³⁸
△이진호³² △이창수⁶³ △이창호³⁷
△이한종⁵⁶ △장영준⁶² △장원기⁶²
△전이수⁵⁴ △정귀열⁵⁹ △정원영⁶³
△정의순⁴ △정진석⁶³ △조기행⁶³
△채홍희⁶² △최희종⁴² △허승⁵⁰
△홍연우⁵⁴
◆AIP △고귀선¹⁹ △김순택⁶
△김용범³⁷ △박윤소² △백성근²²
△성필선³⁶ △송태진²² △신강열⁹
△오웅진³⁶ △원석동¹⁹ △이용희¹⁰
△이태화¹⁶ △정영계³³ △조태웅¹⁸
△최익선²⁵ △최정규²⁵ △최평락²⁹
△한미학⁵
◆ACAD △고완섭⁶⁴ △김길제⁴⁹
△김덕창³⁹ △김수만⁵⁶ △김수봉⁵⁷
△김용상²² △김춘식⁴¹ △김한욱⁵²
△김호연¹¹ △노희식³⁸ △문택규⁶³
△심영철⁵⁹ △원종섭³⁵ △유근환¹³
△이관범²⁰ △이광석⁶⁴ △전종식⁷
△정희원⁶⁴
◆ABP △권용범²⁹ △김종욱²⁹
△김현운²⁰ △명동주²⁹ △문창준³⁰
△박현철¹⁰ △신연식¹⁴ △심원경⁵
△이수현⁸ △이용한²⁸ △이준기²²
△조영철²⁷ △차두승³⁰ △최영규³⁰
△허영¹⁴ △홍우표³ △황승환³⁰
◆SGS △연영숙¹⁷
◆CHCN △신경주¹⁰
◆APC △강대가⁴ △김병용⁹
△김종섭⁸ △이명원⁸ △이상윤³
△정필무¹
◆HPM △권명오¹⁹ △사재훈²⁰
△신철화¹³ △신현희²⁰ △이경호¹⁹
△이종열¹⁰ △채상식¹⁷
◆AMPP △공영훈⁸ △김영배⁸
△서학령⁷ △송실광⁷ △최기불⁸
◆AIC △강경원²³ △김광욱²³
△김대식²¹ △김선호²⁰ △민홍식²³
△이덕우²³ △이영훈¹¹ △이종훈²³
△조익현²²
◆AFB △길경일⁶ △김성미⁴
◆AMPFRI △윤한교² △이봉후¹⁶
△정병식²⁰
◆ACMP △김용각¹ △정일주¹
◆IIP △이부일² △이철우²
△홍은미³
◆GLP △김경태¹⁵ △김범수¹⁵
△김창호¹² △박광열¹⁵ △송원근¹⁵
△양정무¹⁵ △오홍환¹⁵
◆ALP △손관수⁶ △이부열⁶
△장일석⁴ △전광호⁵
◆ANMP △신정애⁴ △우진하¹
△이갑숙⁴